2018

정책연구 2018-24

태권도원과 전라북도 태권도자원 연계방안 연구

연구진 최윤규 · 김수지

Jeonbuk Institute

think 전북연구원

정책연구 2018-24

태권도원과 전라북도 태권도자원 연계방안 연구

think 전북연구원

Jeonbuk Institute

연 구 진

연 구 책 임 최 윤 규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공 동 연 구 김 수 지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관리 코드 : 18JU14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 차 | Contents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6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7

1. 연구 내용 ····· 7

2. 연구 방법 ····· 8

3. 연구 과정 ····· 9

제2장 태권도 환경변화 및 국가정책 분석 ····· 13

제1절 환경변화 ····· 13

1.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 ····· 13

2. 지역·경제적 환경의 변화 ····· 17

3. 정치·외교적 환경의 변화 ····· 19

제2절 국가정책 분석 ····· 22

1. 「문재인정부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 분석 ····· 22

제3장 태권도원과 전라북도 태권도자원 ····· 37

제1절 태권도원 ····· 37

1. 물리적 공간 ····· 37

2. 운영주체 : 태권도진흥재단 ····· 39

3. 주요 시행사업 ····· 41

4. 방문객 현황 ····· 48
5. 태권도원 인식조사 ····· 51
제2절 전라북도 태권도자원 ····· 53
1. 태권도 자원의 범위 ····· 53
2. 전라북도 유형 태권도 역사자원 ····· 53
3. 전라북도 무형 태권도 역사자원 ····· 73

제4장 태권도원과 전라북도 태권도자원 연계전략 ····· 87

제1절 자원연계 방향 ····· 87
1. 연계 기조 ····· 87
2. 연계 컨셉 ····· 89
제2절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구성요소 설정 ····· 93
1.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전라북도 태권도 노드 자원(Node) 발굴 ····· 93
2. 허브(Hub) 자원으로써의 태권도원 ····· 100

제5장 태권도원과 전라북도 태권도자원 연계방안 ····· 105

제1절 자원의 구축방안 ····· 107
1. 전주시 ····· 107
2. 군산시 ····· 111
3. 익산시 ····· 112
제2절 자원의 확장방안 ····· 114
1. 전북 관광브랜드 상설공연 연계 익스트림 태권도공연 제작 ····· 114
2. 태권도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제작 ····· 118
3. 템플스테이 연계 자원 개발 ····· 120
4. 태권도 문화마을 조성 ····· 123

표목차 | Contents

[표 1-1] 문재인정부 스포츠분야 국정과제 ····· 3
[표 1-2] 태권도 10대 명품 콘텐츠(안) ····· 4
[표 2-1] 생활태권도 활성화 ····· 25
[표 2-2] 태권도 참여문화 조성 ····· 26
[표 2-3]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27
[표 2-4] 태권도 부가시장 창출 ····· 28
[표 2-5] 태권도의 상징성 강화 ····· 29
[표 2-6] 태권도 브랜드 가치 제고 ····· 30
[표 2-7] 태권도 심사 및 단증발급 체계 개선 ····· 30
[표 2-8] 태권도 ODA 및 현지화 전략 ····· 31
[표 2-9] 글로벌 태권도 리더십 구축 ····· 32
[표 2-10] 태권도 심사 및 단증발급 체계 개선 ····· 32
[표 2-11] 중앙정책과 전라북도 정책 연계 방향 ····· 33
[표 3-1] 태권도진흥재단 연혁 ····· 40
[표 3-2] 체험 프로그램(당일) ····· 44
[표 3-3] 숙박 프로그램 ····· 45
[표 3-4] 태권도원 방문객 현황 ····· 48
[표 3-5] 태권도원 내국인 방문객 현황 ····· 49
[표 3-6] 태권도원 외국인 방문객 현황 ····· 50
[표 3-7] '세계 태권도 문화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 51
[표 3-8] '세계 태권도 문화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 51
[표 3-9] '세계 태권도 문화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 52
[표 3-10] '세계 태권도 문화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 52
[표 3-11] 1963년 제44회 전주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종목 결과 ····· 67
[표 3-12] 1964년 제45회 인천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종목 전북 우승 결과 ····· 67
[표 5-1] 자원(하드웨어) 구축 방안 ····· 113
[표 5-2] 전북 관광브랜드 상설공연 연계 익스트림 태권도공연 제작 예산항목 ····· 117
[표 5-3] 태권도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제작 예산항목 ····· 119
[표 5-4] 템플스테이 연계 관광코스 구축 예산항목 ····· 122
[표 5-5] 태권도 문화마을 조성 예산항목 ····· 125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1-1] 연구 과정 ····· 9
[그림 2-1] 문재인정부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체계도 ····· 24
[그림 3-1] 태권도원 지리적 여건 ····· 38
[그림 3-2] 태권도원 공간구성 ····· 39
[그림 3-3] 태권도 진흥재단 조직도 ····· 41
[그림 3-4] 상설체험(관객참여형 프로그램) ····· 42
[그림 3-5] 태권도 IT체험 (체험관Yap!) ····· 42
[그림 3-6] 태권도원 투어코스 ····· 43
[그림 3-7] 태권도원 프로그램 사례 ····· 46
[그림 3-8]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 ····· 47
[그림 3-9]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 ····· 47
[그림 3-10] 일제강점기 군산세관 현재 모습 ····· 54
[그림 3-11] 최초의 전북 태권도장 현재 위치 ····· 56
[그림 3-12] 전북종합체육관 개관 기념 ····· 57
[그림 3-13] 전북종합체육관 현재 위치 ····· 58
[그림 3-14] 1955년경 전북종합체육관에서 전일섭 ····· 59
[그림 3-15] (좌)척성동 체육관 현재 위치, (우)1957년 척성동 체육관 당시 모습 ····· 61
[그림 3-16] (좌)경원동 체육관 현재 위치, (우)경원체육관 당시 모습 ····· 64
[그림 3-17] 1967년 경원동체육관 시간표 ····· 66
[그림 3-18] 1961년 한일무도 친선대회 안내서 표지 ····· 69
[그림 3-19] '한·일 친선 공수도대회'개막식 모습 ····· 71
[그림 3-20] 옛 전주공설운동장 현재 모습 ····· 71
[그림 3-21] 1950, 60년대 겨루기 수련 사진 ····· 75
[그림 4-1]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 도입 전·후 비교 ····· 90
[그림 4-2]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 구성요소 ····· 91
[그림 5-1] 전라북도 태권도 역사자원 분포 ····· 105

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정부, 태권도를 통한 한류 확산 추진

○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인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실천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수립함

○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의 실천과제로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향유 환경 조성'과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태권도 문화콘텐츠화'가 수립됨

○ 즉, 정부는 스포츠의 주요 키워드로 '생활체육 지원 확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태권도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설정함

[표 1-1] 문재인정부 스포츠분야 국정과제

국정과제(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문화체육관광부)
• 과제목표 - 국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향유 환경 조성 -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 내용 - (생활체육 환경 조성) 체육시설, 지도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등 생활체육 지원 확대 -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시설 완공 및 붐업제고와 성공적인 대회 운영 -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전 세계 보급 • 기대효과 - 생활체육 향유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생활참여율(주1회 체육활동 기준) 2022년 64.5% 달성(2016년 59.5%) - 태권도를 통해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세계적 태권도 관련 기업 육성

자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참고하여 재구성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전 세계 보급 계획 수립

○ 정부는 국정과제인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수행을 위해 2017년부터 '국기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대 추진방향 및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자함

○ 국기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추진위원회는 태권도의 문화적 정체성 문제, 태권도 산업의 부재, 태권도 세계화로 인한 평준화와 탈한국화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스포츠·산업이 융합하는 태권도 명품 콘텐츠를 개발하고자함

-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인기를 얻는 상황에서 2022년부터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최종적으로 태권도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표 1-2] 태권도 10대 명품 콘텐츠(안)

태권도 10대 명품 콘텐츠(안)
• 비전 : 스포츠를 통한 활기찬 대한민국 • 목표 : 문화·스포츠·산업이 융합하는 태권도 명품 콘텐츠 개발 • 내용 - (정체성) 태권도 가치 재발견, 명품 교육시스템 구현, 태권도 문화유산 전승 - (산업화) 태권도 상품 명품화, 관람형 콘텐츠 육성, 산업진흥 기반 조성, 미래시장선점 - (세계화) 글로벌 리더십 강화, 태권도 문화 확산, 국제교류협력 증진 • 추진체계 -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태권도 4단체 협의회 운영)

자료 : 국기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추진위원회(2017), 「태권도 10대 명품 콘텐츠(안)」에서 참고하여 재구성

▌태권도진흥재단의 태권도 진흥 정책

○ 태권도원은 2014년 태권도 수련 공간 및 문화교류 허브 등 태권도 세계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개원하였으며 운영주체로 태권도진흥재단이 창립됨

○ 태권도 진흥재단은 태권도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태권도 보존·보급·홍보에 관한 사업,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

업, 태권도원 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 태권도 용품·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원하고 있음

○ 태권도 진흥재단은 태권도 보존 및 보급을 실현하기 위해 전북 겨루기 태권도를 도 무형문화재로 신청하여 지정받는 등 다양한 태권도 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문화콘텐츠화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음

▌ 전라북도의 태권도 역사문화자원

○ 1950년 전라북도에서는 승패를 판단하는 겨루기 중심으로 육성되었으며 이후 단기간에 급속도로 발전되었음

○ 전라북도 태권도 겨루기는 명확한 승패 결정을 위해 규칙과 용어를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이 규정이 태권도 공식규정으로 채택됨

○ 더불어 전라북도 태권도인들은 선수 보호를 위해 세계 최초로 태권도 호구를 개발하였으며 본 호구가 발전하여 오늘날의 현대식 호구로 발전하게 됨

○ 태권도의 발달과정 전라북도 태권도의 기여도가 높고 전라북도의 태권도 자원이 다양한 것에 비해 전라북도의 태권도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있음

○ 태권도를 통해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세계적 태권도 관련 기업 육성하는 정부의 정책(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과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개발 방향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태권도원과 다양한 태권도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전라북도를 연계할 방안을 마련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 ❍ 태권도 종주국인 대한민국은 그동안 태권도를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음. 문재인 정부도 태권도를 주요한 콘텐츠로 인식하고 태권도 10대 명품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 정부는 태권도 진흥을 위해 2014년 무주군 설천면에 태권도원을 개원했고, 매년 20여만 명의 목적 방문객들이 태권도원을 찾아 수련하고 있음
- ❍ 태권도원을 찾은 방문객들은 태권도를 수련, 체험, 학습 등 태권도 관련 콘텐츠를 소비하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 태권도원이 위치한 전라북도는 태권도 경기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실전 위주의 겨루기 등 다양한 콘텐츠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 하지만 태권도원을 찾은 방문객들은 태권도원에서 관련 콘텐츠를 소비하고 떠날 뿐 지역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전북이 보유하고 있는 태권도 관련 자원을 발굴 및 조사정리를 일차적 목적으로 함
- ❍ 이에 더해 발굴된 태권도 자원을 콘텐츠로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 마지막으로 태권도 콘텐츠를 거점으로 인근 지역과 연결시킴으로써 태권도원 방문객의 도내 유입 방안을 검토하였음
- ❍ 결론적으로 태권도원을 찾은 목적 방문객들에게 전북의 태권도 역사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음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연구 개요

○ 연구 배경과 목적, 범위와 내용, 연구방법 및 체계 설정

▌ 태권도 환경변화 및 국가 정책 분석

○ 태권도의 사회·문화적, 지역·경제적, 정치·외교적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

○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 검토를 통해 정부의 태권도 정책 동향 파악

▌ 태권도원 및 전라북도 태권도자원 현황분석

○ 전라북도 태권도자원과의 연계를 위한 태권도원 현황분석

○ 전라북도 태권도자원 도출을 위한 전라북도 태권도 원로 현장자문

○ 전라북도 유·무형 태권도 역사자원 현황파악 및 체계화

▌ 태권도원과 전라북도 태권도자원 연계전략 설정

○ 태권도원과 전라북도 태권도자원 연계 방향 및 연계 컨셉 설정

○ 태권도원과 전라북도 태권도자원 연계를 위한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구성요소 설정

▌ 태권도원과 전라북도 태권도자원 연계방안 구축

○ 도내 시·군(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태권도 자원 구축방안 도출

○ 태권도 관련 소트프웨어 프로그램 발굴 등 태권도 자원의 확장방안 도출

○ 태권도원과 각 시·군의 태권도자원 연결을 위한 공간의 확장방안 도출

▌ 본 연구의 한계

○ 본 연구는 내적인 지향성을 중심으로가 진행되어 대외지향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지 못함. 향후 태권도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라북도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한 대외지향성 연구의 필요성을 후속 연구로 제안함

2. 연구 방법

○ 태권도의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문재인정부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 등 정부보고서를 종합 검토

○ 전라북도의 태권도 관련 정책 파악을 위해 관련 도정현황 검토

○ 태권도원 현황분석 실시를 위해 관계자 인터뷰 및 관련 자료 수집·분석

○ 전라북도 태권도자원 도출을 위해 관련 보고서 분석 및 전라북도 태권도 원로현장자문 실시

○ 태권도원과 전라북도태권도자원 연계방안을 연계전략 및 연계방안 구축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3. 연구 과정

[그림 1-1] 연구 과정

2장

태권도 환경변화 및 국가정책 분석

Jeonbuk Institute

제1절 환경변화
제2절 국가정책 분석

제2장 태권도 환경변화 및 국가정책 분석

제1절 환경변화

❍ 문재인정부는 과거 국민 다수의 의견이 국가정책 반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정책에 은 수립과 운영의 주체가 '국민'임을 명시하고자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가비전을 설정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고자 함(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1)]

❍ 시장자유화의 확산, 참여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성장 및 분권화·자율화(주선옥, 2017)[2)]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의해 과거와 달리 국민 개개인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여건 개선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시장만능주의 확산에 따른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성 약화를 초래하는 다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강조함

- 따라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고 사회 구성원 간 유대강화를 위한 적극적 행위자로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1.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

❍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성장·소득 중심의 양적 패러다임에서 국민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사회 확립 등 질적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변모하고 있으며(전북연구원, 2018)[3)], 특히 워라밸(Work & Life Balance)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휴식과 여가가 있는 삶이 개개인의 중요한 삶의 지표로 부각됨

- 개인의 행복과 현재의 삶을 우선하고 조직보다 개개인의 건강한 삶의 영위활동이 중요

---

1)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 주선옥(2017), 「정책생태계 리질리언스를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 pp. 153~182

3) 김형오·장재협·김수지(2018), 「국가 관광정책과 전라북도 토탈관광 연계 활성화 연구」, 전북연구원 정책과제

가치로 부각되면서 변화한 국민의 인식, 사회적 가치관은 젊은 세대 중심으로 확산되던 일과 여가의 균형, 다양성을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전(全) 세대로 확대되는 추세임

❍ 특히, 전통적 가치관과 사회통념의 변화는 국민 스스로가 개개인의 문화·여가활동 시간을 조절하는 라이프밸런스(Life balance) 문화의 확산으로 투영되어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포용과 삶의 질 중심의 사회'로 변모하는 변혁기라 해석할 수 있음

- 2017년 국민사회조사(통계청, 2017)[4]에 의하면,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스포츠활동(24.9%)'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2015년(24.1%)[5] 대비 약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관람(10.2%)' 및 '취미·자기개발활동(7.8%)' 등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여전한 사회적 계층의 존재와 가계소득 및 여가시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의 문화·예술의 향유 및 스포츠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불평등의 증대, 불공정 문화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갈등의 분출, 불안한 생애과정(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등 파생되는 각종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임

- 2017년 기준, 여가시간 활용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는 약 27.2%로 2015년(26.0%) 대비 약 1.2%p 증가하였으나, '불만족'하는 경우 역시 26.2%로 2015년(25.1%) 대비 약 0.9%p 증가하여 정책·제도 및 행정적 기반이 사회적 수요와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여가 활용의 제약요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경우, 가장 높은 제약요인으로 지목된 '경제적 부담(54.2%)'의 경우, 2015년(58.2%) 대비 약 4.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소비의 불균형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보이나 응답율의 과반을 넘어 계층 간 불균형은 여전한 것으로 보임. 또한, '시간부족(24.4%)'의 경우에는 약 4.2%p 증가(2015년 20.2%)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인식이 일과 여가의 균형을 추구함에도 사회기반은 문화와 가치관 변화 기류에 상승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앞선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사회의 사회·문화적 흐름은 '삶의 질 향상, 웰빙(Well-Being), 및 건강' 등 개인의 삶의 가치가 나날이 중요해지는 추세이

4) 통계청(2017), 「2017년 사회조사결과_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통계청 사회통계국

5) 통계청(2015), 「2017년 사회조사결과_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통계청 사회통계국

며 국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스포츠와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국기원, 2015)[6]

- 문재인정부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사회적 계층 또는 생애주기별 비수혜자 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 또는 스포츠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으로 마련하고자 국가 스포츠향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도마련에 역량을 집중토록 함

❍ 따라서 성장일변도의 국가정책에서 탈피하고 질적 성장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증가하는 여가·문화활동의 수요 충족을 바탕으로 정부가 지향하는 '생활체육 향유 환경 개선'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태권도 기반 국민 생활체육 환경 조성 등 국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임

❍ 한편, 현대사회는 확산되는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에 따라 집단 또는 계층 간 갈등과 충돌이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사회적 문제 또는 이슈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인성교육을 비롯하여 전(全) 세대의 심리교육 등 사회생활 영위를 위해 바람직한 행위의 표준에 대한 재조명과 국민교육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

- 이를 위해 태권도 등 스포츠활동은 국민의 단순한 체력증진 외에도 정신건강을 위한 효율적·효과적 처치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태권도의 경우 수련활동이 내포하는 '신체적 교육', '정신적 교육' 및 '사회적 교육'의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임

❍ 과거와 달리 개인의 가치 또는 신념이 집단문화보다 우선되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는 국가 차원의 대응방안 모색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주의·집단주의 및 스트레스(Stress) 등 현대사회에 만연한 각종 질병에 의한 사회 이슈는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복잡성과 불확시성에 따른 공공문제(주선옥, 2017)로 해석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임

6) 국기원(2015), 「태권도산업화 촉진 정책방향 연구」, 국기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8)[7]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 사회문제의 심각 수준에 대해 일반국민은 약 83.0%, 전문가는 77.0%로 나타나 그 심각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국가정책 또는 역량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문제해결 정도에 대해 일반국민(45.0%)과 전문가(48.0%)는 그 역량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18. 인용)

❍ 또한, 단순한 양적 성장에서 탈피하여 공공사회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를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스포츠활동·생활스포츠 활성화 등 국가 체육정책 역시 이와 같은 변화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이승규 외, 2018)[8]

- 근래 발표된 다양한 체육·스포츠 관련 정책은 공공성·사회적 책임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책임 강화를 추구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람' 중심의 혁신과 방향을 지향하고 있으며, 국민 모두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여건조성 등 각종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 스포츠활동이 하나의 방안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음

❍ 태권도는 하나의 특정한 스포츠활동이자 한국 고유의 무도로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신체적 건강 증진과 호신능력 향상을 위한 신체측면 외에도 정신수양의 개념에서 태권도가 보유한 가치덕목을 내면화하는 정신측면과 함께(최공집·박동수, 2014)[9]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행위의 표준 중 하나인 대인관계에 대한 예의범절과 존중을 수련하는 사회측면에서의 효율적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음

- 태권도는 신체적 단련 외 정신수양을 위한 교육으로(고문수·손천택, 2004[10]; 정일홍, 2012[11]; 정현도·박동수·최공집, 2013[12]; 최공집·박동수, 2014) 인내심, 예의범절 및

---

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8),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 문제 해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대국민·전문가 설문조사」

8) 이승규·용태석·김진경(2018),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역량 변화 방향 제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Issue Weekly

9) 최공집·박동수(2014), 「태권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효과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9(2), pp. 105~116

10) 고문수·손천택(2004), 「초등학생의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에 관한 체험과 인식」, 한국체육학회지, 43(3), pp. 337~347

11) 정일홍(2012),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투기 도전활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7(3), pp. 1~10

대인관계 등 인성관련 요인의 교육내용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함(주진만, 1998[13]; 최공집·박동수, 2014)

○ 따라서 이와 같은 여건 변화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수단 또는 도구이자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이며 효율적 방안으로써 태권도를 포함한 국민의 스포츠활동 향유 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과 제도, 행정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2. 지역·경제적 환경의 변화

○ 과거 한국은 높은 인구증가 추이와 생산가능인구 비중에 의해 노동력과 소비가 중심인 양적 경제성장을 경험한 인구보너스(Demographic Bonus) 시대(이희연, 2016[14]; 김형오 외, 2018[15])이었으나, 현대 세계 주요국가의 난제인 저(低)출산과 인구고령화, 인구과소화 등에 의한 인구절벽 현상에 의해 65세 이상 인구의 급진적 증가 추이로 본격적 인구오너스(Demogrphic Onus) 시대로 변화하여(전북연구원, 2018)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약 7.0%를 상회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최윤규 외, 2018)[16]

- 관련 연구에 의하면, 국내 226개 시·군·구 중 약 29.7%(79개)의 지역이 2026년까지 소멸할 것으로 전망되며(이상호, 2016[17]; 김형오 외, 2018), 이는 저(低)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 효과로 문화체육관광부(2017)에 의하면 국내 고령인구는 2026년 전체 인구의 약 20.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최윤규 외, 2018)

○ 전북연구원(2018)에 의하면, 저출산과 고령인구의 증가에 의한 상하(上下)로 구

12) 정현도·박동수·최공집(2013), 「청소년 태권도 선수들의 수련 참여 동기와 만족도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7(4), pp. 267~272

13) 주진만(1998), 「태권도 수련이 어린이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4) 이희연(2016),「저출산 고령화시대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토론노트, 2016.10.20.

15) 김형오·장재협·김수지(2018), 「국가 관광정책과 전라북도 토탈관광 연계 활성화 연구」, 전북연구원 정책과제

16) 최윤규·김시백·김수지·신지원(2018), 「전북 스포츠산업 발전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정책과제

17) 이상호(2016),「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지역고용동향브리프, 봄호, pp. 4~17

분되는 사회계층의 급격한 양분화는 앞선 논의와 같이 인구감소, 인구절벽 및 지방소멸이라는 극단적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최윤규 외, 2018) 비혼족으로 인한 1인가구,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 가정 등 국내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국가 및 지역경제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국가 및 가계경제의 이슈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와 지역, 가계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됨(LG경제연구원, 2017[18]; 문화체육관광부, 2017[19]; 최윤규 외, 2018)

❍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스포츠산업, 특히 태권도 시장에서 수련인구의 지속적 감소세를 발생시킬 원인으로 지목되며(문화체육관광부, 2018)[20], 구체적으로 아동 위주의 태권도장 시스템 구축으로 수요계층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문화체육관광부, 2018)[21]에 따라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임

- 따라서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 모두가 편하게 즐기는 스포츠향유'를 위해서 아동에 집중된 태권도 관련 콘텐츠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변화하는 인구구조 등 시장의 수요와 욕구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아동 중심의 도장교육에서 탈피하고 청소년, 성인 및 노년층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함

❍ 한편, 스포츠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타 산업과 비교할 경우, 높은 고용유발효과 및 기타 산업과의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생태계를 창출할 기회가 높은 국가 및 가계경제의 新성장동력으로 주목(문화체육관광부, 2018; 최윤규 외, 2018)되고 있으며,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와 청년실업률의 대안으로 미래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완화에 효과적 대응방안으로 지목됨(최윤규 외, 2018)

-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및 AR/VR 등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속도를 높이는 과학기술의 진보는 스포츠용품 및 기록스포츠, 특히 태권도 산업의 경우 전자호구 등의 도입 등 생태계의 진보를 유발하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태권도 용품의 고급

18) LG경제연구원(2017), 「2018년 국내외 경제전망」. 경제연구부문. 2017. 12. 21

19)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스포츠산업실태조사」

20) 문화체육관광부(2018), 「태권도의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문재인정부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

21) 문화체육관광부(2018), 「정부와 태권도 4단체,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발표」, 보도자료

화, 다양화 등 산업의 발전속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문화체육관광부, 2018)

❍ 다만, 태권도를 비롯한 스포츠산업의 그 규모의 영세성이 특징으로 부각됨에 따라 종사자와 콘텐츠 외에도 시설·기업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자생적인 산업 기반 구축이 미흡하고 이로 인하여 지속 성장이 어렵다는 관측이 끊임없이 제기됨(문화체육관광부, 2018)

-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태권도를 비롯한 스포츠산업을 국가 성장의 新동력으로 설정하고 특히 태권도의 경우에는 국기(國技)로 표명하면서 스포츠산업을 넘어서 문화콘텐츠를 접목, 국격(國格) 증진의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천명함(문화체육관광부, 2018)

❍ 따라서 태권도의 고급화 및 대중화를 위해 新기술을 접목하여 단순한 도장교육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한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을 시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3. 정치·외교적 환경의 변화[22)]

❍ 현대사회에서 스포츠산업은 사회·문화적 요소 외에도 경제, 의료 및 정치·외교 등 대내외적인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산업을 둘러싼 거시적 환경의 변화는 스포츠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음(박세혁, 2015[23)]; 최윤규 외, 2018)

- 스포츠의 정치 또는 외교적 가치는 국가 브랜드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대, 사회통합 및 평화구현 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효과적 방안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음(최윤규 외, 2018)

❍ 한반도의 경우,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북한,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외 미국과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으며, 특히 북한의 미사일발

22) 최윤규·김시백·김수지·신지원(2018), 「전북 스포츠산업 발전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정책과제와 문화체육관광부(2018), 「태권도의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문재인정부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를 참고하여 요약 및 재구성함

23) 박세혁(2015). 「한국스포츠산업의 전망과 과제: 스포츠산업의 변신은 경제발전」. 스포츠과학. 130권

사, 핵실험 등 국제사회를 향한 지속적인 도발에 따라 끊임없는 냉전구도에 국가의 외교적 역량이 매우 요구되는 시점임(김형오 외, 2018; 최윤규 외 2018)

- 문재인정부는 남북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의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 유도 및 2018년 4월 판문점 정상회담 성사,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의 가교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여 세계적으로 조성되던 냉전분위기를 해소하는데 이바지 함

❍ 정부는 2018년 4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국기(國技) 태권도'의 법제화하고 국가 상징으로서 태권도 지정에 따른 다양한 사업·콘텐츠의 발굴,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예견함(문화체육관광부, 2018)

❍ 따라서 문화, 교육, 과학 등 소프트산업의 국가 간 교류가 증가하는 현대 정치·외교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태권도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육성·발굴하여 국가 브랜드 제고 및 국격상승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무예보다 경기가 부각되면서 태권도의 무도성이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정체성의 혼란기를 겪으면서 고유전통설, 동북아 무술 혼합설 등 다양한 외풍에 영향을 받기 시작함(문화체육관광부, 2018)

- 특히, 경기 매력의 감소 등으로 올림픽 종목의 경쟁력이 저하되기 시작하여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며, 해외 태권도단체의 이탈 움직임이 포착되고 올림픽 종목의 유지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위기설이 대두되면서 '태권도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높아짐

❍ 따라서 태권도를 둘러싼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태권도 종구국의 신뢰 회복 및 글로벌 리더십의 확립·강화를 통해 태권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외교적 상황에서 문화·예술 및 스포츠의 역할과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태권도를 활용한 다양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와 북한 중심의 국제태권도연명(ITF)로 양분된 세계 태권도 단체에 의해 용어와 품새, 기술 및 경기 규정 등의 이질성이 나날이 심화됨에 따라 남북 태권도 합동공연 등 평화적 분위기를 계기로 이질화된 태권

도 브랜드의 교류와 협력 및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2018)는 급변하는 정치·외교적 상황에서 태권도를 기반으로 스포츠 및 문화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국가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태권도의 경우에는 글로벌 리더 육성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며 다양한 ODA 확대에 따라 세계적으로 태권도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제2절 국가정책 분석

1. 「문재인정부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 분석[24)]

○ 정부는 내적, 외적, 시대적 요구 등 태권도의 재도약을 위한 내·외부의 혁신요구에 따라 이에 부응한 「태권도의 미래 발전과 정책과제 -문재인정부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을 수립함

- 태권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아동을 중심으로 태권도를 수련하는 도장 시스템에서 국민 모두가 즐기는 생활 스포츠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내적 요구 발생
-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위협 및 해외 태권도단체의 이탈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태권도 종주국으로써의 신뢰성 확보 필요
- 남북 태권도 합동공연 등 남북이 화해모드로 접어들면서 이질화되어 있는 남북 태권도(WTvs.ITF)의 통합화 추진 필요성 대두

○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태권도의 문화콘텐츠화'를 선정하였으며, 태권도의 국기(國技) 지정을 계기로 관련 사업 개발, 단체 혁신, 제도정비 등의 후속조치를 실현하고자 함

1) 현황 및 문제점

○ 아동층 중심으로 태권도 수련인구가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의 영향으로 태권도 수련층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태권도 유품단지는 증가하는 반면, 일자리 정체로 인해 태권도 전공자는 감소하는 등 불균형 성장이 발생하고 있음

○ 태권도장은 이미 포화상태로 도장산업의 한계점에 도달하였으며, 신기술 접목, 부가시장 개발 등 산업기간 형성이 미흡한 실정임

○ 태권도의 기술, 인물 등 태권도의 학문적 연구나 타 학문과의 융합연구가 부족한

24) 문화체육관광부(2018). 「태권도의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문재인정부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WORLD TAEKWONDO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실정이며, 태권도원, 기술, 도복, 겨루기 등 상징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느나 보존-개발-활용이 취약한 실정임

❍ 올림픽 탈락위기 반복(2028년 이후 재심사) 등 태권도 경기 매력 감소로 인하여 올림픽 종목으로써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남북 태권도의 양립으로 이질성이 심화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통한 태권도 프리미엄 제고, 생활태권도 육성 및 태권도 브랜드 제고를 통한 태권도 저변 확대, 올림픽 무브먼트 동참 및 경기와 심판제도 혁신을 통한 글로벌 디더십 강화, 태권도단체의 혁신 및 단증 발급체계 개선을 통한 지원체계 혁신 방안을 강구하고자 「태권도의 미래 발전과 정책과제 –문재인정부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을 수립함

2)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전략

❍ 「태권도의 미래 발전과 정책과제 –문재인정부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은 '태권도로 열어가는 건강한 세상,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태권도 관련 사업 개발, 단체 혁신, 제도 정비 등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요요소가 되고자 태권도 저변 확대, 태권도 산업생태계 조성, 태권도 위상과 정체성 확립, 태권도 글로벌 리더십 강화, 태권도 지원체계 혁신을 추진목표로 설정함

❍ 앞선 논의에 따라 태권도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해 정책적 방향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평생 즐기는 태권도', '지속 성장하는 태권도', '자랑스러운 태권도', '세계와 함께하는 태권도' 및 '신뢰받는 태권도' 등 5대 추진전략을 마련함으로써 태권도 관련 사업 개발, 단체 혁신, 제도정비 등을 실현하고자 함

❍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을 통해 연차별 재정투자 확대,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추가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태권도의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문재인정부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WORLD TAEKWONDO

[그림 2-1] 문재인정부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체계도

3)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핵심과제

○ 따라서 '태권도로 열어가는 건강한 세상,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10대 핵심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제시하고 정책적·제도적 및 행정적 기반과 역량을 집중하여 관련 사업 개발, 단체 혁신, 제도정비 등을 도모하고자 함

▌ 생활태권도 활성화

○ 계층별 운동능력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도자 교육을 통한 생활태권도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학교태권도 활동 지원, 태권도 주말 리그 지원 등을 통한 생활밀착형 태권도를 확산하고자 함

○ 더불어 여성 태권도 단체 등을 통해 여성전용 태권도 도장 지원 시범사업 및 지역 실버태권도 자랑대회를 개최하여 수요자 맞춤형 태권도를 보급하고, 찾아가는 태권수련 프로그램, 직장인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태권도 도장 확산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언제 어니서나 이용 가능한 태권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함

[표 2-1] 생활태권도 활성화

추진과제	세부내용
생활밀착형 태권도 확산	• 생활태권도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 학교태권도 활동 지원 • 태권도 주말 리그 지원
수요자 맞춤형 태권도 보급	• 여성 특화 태권도 도장 지원 • 실버 태권도 할성화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태권도	• 찾아가는 태권도 • 직장인 수련반 확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태권도의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문재인정부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WORLD TAEKWONDO

▌ 태권도 참여문화 조성

○ 소규모 태권도 문화행사 개최 지원하고 우수한 태권도 콘텐츠의 공연상설화를 지원하는 등 태권도 창작콘텐츠 발굴 지원을 통해 지역 태권도 문화축제를 육성하고자 함

○ 태권도 캠프 활성화 및 소외 청소년 태권도 참가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송회계층의 태권도 참여를 증진하고, 장애 유형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장애인 태권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표 2-2] 태권도 참여문화 조성

추진과제	세부내용
지역 태권도 문화축제 육성	• 지역별 태권도 가족 축제 • 스포츠클럽 밀 대학동아리 문화
소외계층 태권도 프로그램 확대	• 태권도 캠프 활성화 • 소외 청소년 태권도 참가 프로그램
장애인 태권도 참여지원	•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 태권도의 활성화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태권도의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문재인정부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WORLD TAEKWONDO

▌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실태조사 및 통계 축적 등을 통한 태권도 산업진흥 방안을 마련하고, 도복, 호구 등 태권도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개선 및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태권도 상품의 고급화·다양화를 지원하고자 함

○ 도장 창업자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여 도장경영을 지원하고, 외국인 및 한방 등 특화 태권도장을 지원하여 관광상품화를 유도하고자 함

○ 세계태권도연수원(WTA)을 교육훈련 전문기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직무 중심형 교육,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전문가 육성 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도자의 경력을 관리하고자 함

[표 2-3]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추진과제	세부내용
신사업화를 위한 기초 조사와 연구 기반 조성	• 산업통계조사 및 육성계획
관련 상품의 고급화·다양화 지원	• 전자호구의 표준 테스트 시스템 개발 연구 • 도복 시제품 제작 지원 • 용품의 다양화
도장 활성화 지원	• 도장경영 지원 • 시설 표준 매뉴얼 • 특화도장 지원
세계태권도연수원(WTA)의 역할과 기능강화	• 세계태권도연수원(WTA의 확대 개편
WTA의 기능 및 프로그램 강화	• 직무 중심형 교육콘텐츠 • 온라인 교육시스켐 구축 • 지도자 경력관리 • 전문가 육성 교육시스템 구축(실전형 지도자, 엘리트 지도자, 심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태권도의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문재인정부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WORLD TAEKWONDO

▌ 태권도 부가시자 창출

❍ 관객의 흥미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경기방식을 개발하여 태권도를 관람스포츠로 육성하고자 함

❍ 스토리라인을 갖춘 콘텐츠를 확보하고 우수한 콘텐츠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상설화를 추진하고, 국기원 및 태권도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관광자원과 연계한 태권도 순례 프로그램을 개발·육성하여 태권도를 통한 지역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V·AR을 이용한 콘텐츠 개발, 시범로봇 개발 등 차세대 기술 산업화를 지원하고자 하며, 태권도 미디어 기술을 개발하여 시청자의 만족도를 재고하고자 함

[표 2-4] 태권도 부가시장 창출

추진과제	세부내용
태권도 관람스포츠 육성	• 태권도 경기의 대중화
태권도 문화콘텐츠 개발·사업화	• 태권도 문화콘텐츠 개발 • 태권도 대표기관 활용 관광자원화
4G 기술 및 미디어 기술의 접목	• 융·복합 기술 사업화 지원 • 태권도 미디어 기술 개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태권도의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문재인정부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WORLD TAEKWONDO

▌태권도의 상징성 강화

○ 태권도 역사의 주요 인물, 기술, 장소 등 태권도 무형자산을 발굴하고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등에 대한 예우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더불어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검토를 통해 과거 태권도의 원형 발굴 가치를 재조명하고자함

○ 수도권 태권도 대표관광지로 국기원을 명소화하고자 하며, 2020년까지 태권도원 상징지구 내 태권전, 명인전을 건립하여 세계 태권도 문화교류의 허브로 조성하고 해외 태권도인의 방문 유치를 확대하고자 함

○ 태권도원 내 국립태권도박물관에 유물을 통합·관리하여 상징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태권도 관련 정보-도서-기록-유물 등을 수집-보관-디지털화하여 전시, 체험, 교육, 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라키비움을 구축하고자 함

[표 2-5] 태권도의 상징성 강화

추진과제	세부내용
무형자산 발굴 및 상징화	• 태권도 무형자산 발굴 • 태권도 공헌자 예우 •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검토
유형자산의 상징화	• 국기원 명소화 • 태권도원 상징지구 조성
태권도 지식자원 관리·서비스 체계화	• 유물관리 일원화·체계화 • 태권도 라키비움 구축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태권도의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문재인정부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WORLD TAEKWONDO

▌태권도 브랜드 가치 제고

❍ 태권도의 역사, 기술과 응용, 겨루기와 품새 등 실제 활용 가능하도록 교본 개정 및 교본의 디지털 콘텐츠화, 다양한 태권도 연구지원을 통한 태권도 기초 콘텐츠 개발과 연구의 다각화를 도모하고자 함

❍ 태권도 브랜드 마켄팅 전략 수립 등을 통한 이태권도 브랜드 이미지 개선 실시 및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한 태권도 인식개선 활동 등을 실시하고자 함

❍ 인터넷 태권도 TV 등 태권도 미디어채널 확보, 주요 글로벌 스포츠 매체를 이용한 중계 및 광고 추진, 통합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종합적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여 태권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표 2-6] 태권도 브랜드 가치 제고

추진과제	세부내용
태권도 기초 콘텐츠 개발과 연구 다각화	• 태권도 교본 개정 • 교본의 디지털 콘텐츠화 • 아양한 태권도 연구 지원
태권도 브랜딩 전략 구축 및 실행	• 태권도 브랜드 이미지 개선 • 태권도 인식개선 활동
태권도의 종합적 홍보마케팅 지원	• 태권도 미디어채널 확보 • 글로벌 매체 홍보 • 온라인 플랫폼 구축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태권도의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문재인정부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WORLD TAEKWONDO

▌태권도 심사 및 단증발급 체계 개선

❍ 심사수수료 내역에 대한 공개 및 심사비 책정기준 마련, 심사제도 개선, 도장제도 개선 등 국내 승품·단 심사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더불어 해외 승품·단 심사기준 개선 및 일원화 추진, 심사비 수급체계 개선, 발급제도 개선 등 해외 승품·단 심사 및 단증발급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표 2-7] 태권도 심사 및 단증발급 체계 개선

추진과제	세부내용
국내 승품·단 심사제도 개선	• 심사비의 공개·책정 • 심사제도 개선방향 • 도장제도 개선방향
해외 승품·단 심사 및 단증발급제도 개선	• 해외 단증제도 개선 • 국가협회 일원화 • 심사비 수급체계 개선 • 심사·단증 발급제도 개선방안 마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태권도의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문재인정부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WORLD TAEKWONDO

▌ 태권도 ODA 및 현지화 전략

❍ 통합적 태권도 ODA 전략과 추진계획 수립, 인력-프로그램-용품 등이 결합된 종합형 ODA패키지사업 마련 및 지원, 국제기구 협력 프로그램 지원 등 체계적 태권도 ODA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해외 공관, 현지 한국문화원 등과 연계한 태권도 확산 프로그램 추진, 해외 태권도장에 한국형 도장문화 확산, 현지주재 사범에게 아타셰 역항을 부여, 해외 사범활동 강화 등 해외 거점을 활용한 태권도 문화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 아타셰(attaché) : 정보수집을 위해 대사관, 공사관 등에 파견하는 전문 직원, IOC 대회 개최시 각국 대표자의 준비를 도와주는 담당관

[표 2-8] 태권도 ODA 및 현지화 전략

추진과제	세부내용
체계적 태권도ODA사업 추진	• 태권도 ODA 전략 수립 • 태권도 ODA 프로그램 확대 • 국제기구 협력프로그램 지원
해외 거점을 활용한 태권도 문화의 확산	• 해외공간 연계 • 한국형 도장문화 확산 • 해외 사범활동 강화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태권도의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문재인정부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WORLD TAEKWONDO

▌ 글로벌 태권도 리더십 구축

❍ 태권도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를 매년 개최, 발전전략 수립 및 실행 및 WT의 위상 강화, 외국인 태권도아카데미 등 태권도 종목 발전과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님북태권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소통채널 구축, 제도적 장치마련, 교류, 정기 친선 대회, 공동학술 세미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표 2-9] 글로벌 태권도 리더십 구축

추진과제	세부내용
전세계 태권도 지도자 회의 정례화	• 태권도 리더스포럼 개최
태권도 종목발전과 위상 제고	• 발전전략 수립 및 실행 • WT의 위상 강화 • 외국인 태권도아카데미
남북태권도 교류 활성화	• 남북 기구 간 협력체계 구축 • 분야별 교류 확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태권도의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문재인정부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WORLD TAEKWONDO

▌ 단체의 역량 제고 방향

❍ 단체 역량 향상을 위해 대표성 있는 인사들의 참여 독력 및 합리적 조직구조 개편을 통한 의사결정 구조 및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하고, 직무진단을 통한 성과평사 시스템 도입 등 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단체 간 중복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여 정관상의 고유 업무를 중심으로 핵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표 2-10] 태권도 심사 및 단증발급 체계 개선

추진과제	세부내용
단체의 역량제고 방향	• 대표성확보 • 투명성제고 •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 • 재정혼경 개선
단체 간의 역량 정립과 기능 조정	• 중복기능 조정 • 고유 업무에 대한 집중과 역량강화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태권도의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문재인정부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WORLD TAEKWONDO

4) 중앙정책과 전라북도 정책 연계 방향

○ 정부는 태권도 미래발전과 정책과제로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의 추진목표로 '태권도 저변 확대', '태권도 산업생태계 조성', '태권도 위상과 정체성 확립', '태권도 글로벌 리더십 강화', '태권도 지원체계 혁신'을 설정함

○ 본 과제에서는 정부의 태권도 5대 추진 목표 중 하나인 '태권도 위상과 정체성' 확립을 통한 '태권도원과 전라북도 태권도 자원의 연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세부적으로 정부가 설정한 태권도 5대 추진전략 '하나인 자랑스러운 태권도' 및 10대 핵심과제의 '5. 태권도의 상징성강화'의 세부 내용인 태권도 역사의 주요 인물, 기술, 장소 등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태권도 유·무형자산을 재조명하고자 함

○ 전라북도 태권도 유·무형자산으로 정립된 내용을 세계 태권도 문화교류의 허브로 상징성을 강화하고자하는 태권도원과 연계하여 태권도원의 방문객을 전북도 내로 연계하고자 함

[표 2-11] 중앙정책과 전라북도 정책 연계 방향

5. 태권도의 상징성 강화
• 태권도 역사의 주요 인물, 기술, 장소 등 태권도 무형자산 발굴, 공로자 등에 대한 예우방안 마련.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검토 등 과거 태권도의 원형 발굴 가치 재조명

추진과제	세부내용
무형자산 발굴 및 상징화	• 태권도 무형자산 발굴 • 태권도 공헌자 예우 •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검토
유형자산의 상징화	• 국기원 명소화 • 태권도원 상징지구 조성
태권도 지식자원 관리·서비스 체계화	• 유물관리 일원화·체계화 • 태권도 라키비움 구축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태권도의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문재인정부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WORLD TAEKWONDO

3장

태권도원과 전라북도 태권도자원

Jeonbuk Institute

제1절 태권도원
제2절 전라북도 태권도자원

제3장 태권도원과 전라북도 태권도자원

제1절 태권도원

1. 물리적 공간

1) 위치 및 접근성

▮ 위치

❍ 태권도원의 지리적 위치는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일원

- 태권도원이 자리 잡고 있는 무주군은 소백산맥 준령에 위치하고 있음. 무주군은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와 경계를 이루며, 전라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등 5개 도, 6개 시·군과 인접하고 있음

▮ 접근성

❍ 차량접근성 : 무주는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를 통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정도 소요하여 접근 가능하며, 무주 IC에서 태권도원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므로 총 2시간 30분 이내로 접근 가능함

- 무주 IC에서 태권도원으로 접근 가능한 진입로가 왕복 2차로의 선형이 불량하여 약 30분 정도 통행시간이 소요되어 개선을 통한 접근성 제고가 필요함(전북연구원, 2015)
- 승용차 기준으로 인천국제공항-태권도원 약 3시간 30분, 대구국제공항-태권도원 약 2시간 30분, 평택항-태권도원 약 3시간이 소요됨

❍ 대중교통접근성: KTX 및 버스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 대전역 → 대전 복합터미널 → 무주시외버스터미널
- 영동역 → 영동 시외버스터미널 → 무주시외버스터미널
- 서울 남부터미널 → 무주터미널 직행(1일 5회)

자료 : 태권도원 홈페이지(http://www.tkdwon.kr)

[그림 3-1] 태권도원 지리적 여건

2) 공간구성

- 총 면적은 2,314㎡이며 '도전의 장 - 체험공간', '도약의 장 - 수련공간', '도달의 장 - 상징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도전의 장은 T1 경기장, 공연장, 박물관, 체험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권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도약의 장은 도약관(숙박시설), 도약센터(수련/교육/체력단련시설), 운영센터, 식당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권도 전문연수를 실시하는 수련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도달의 장은 전통정원/호연정, 태권전/명인관, 오행폭포, 명예기림, 전망대 등의 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태권도의 근본정신을 계승하는 공간으로 태권도 종주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상징공간임

출처: 태권도원 내부자료

[그림 3-2] 태권도원 공간구성

2. 운영주체 : 태권도진흥재단[25)]

▌ 설립 근거 및 목적 퓨

❍ 설립근거 : 태권도 진흥재단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① 공원의 조성·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 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이하 생략…

❍ 설립목적 : 태권도원 조성 운영 및 진흥

- 태권도원 조성 및 효율적 관라운영
- 태권도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

❍ 임무

- 태권도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 태권도 보존, 보급, 홍보에 관한사업

25) 태권도원 홈페이지(http://www.tkdwon.kr/) 태권도진흥재단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 태권도원 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
- 태권도 용품·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원 등

▌ 재단 연혁

[표 3-1] 태권도진흥재단 연혁

추진년도	추진내용
2005. 07.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 설립 허가(문화관광부)
2007. 1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8. 06.	상기 태권도법에 의한 법정법인화
2009. 08.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승인(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09. 09.	태권도공원 기공식
2012. 02.	명칭변경(태권도공원 -> 태권도원)
2013. 08.	태권도원 준공
2014. 04.	태권도원 개원(2014. 9월, 개원식)
2018. 02.	이상욱 이사장 취임(임기: 2018.2월~2021.2월)

출처: 태권도원 홈페이지(http://www.tkdwon.kr/)

▌ 조직구성

❍ 태권도진흥재단은 2본부(경영본부, 사업본부), 1부(조사연구부), 박물관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음(2018년 8월 기준)

- 경영본부 : 기획예산부, 경영지원부, 운영관리부, 정보기술부
- 사업본부 : 교육부, 홍보마케팅부, 진흥사업부, 대외협력부
- 조사연구부
- 박물관

❍ 기존 조직 구성인(2018년 4월 기준) 1실(전략기획실), 3부처(경영본부, 사업본부, 대외렵력본부), 박물관과 비슷한 구조로 조직이 개편함

출처: 태권도원 홈페이지(http://www.tkdwon.kr), 2018년 8월 기준

[그림 3-3] 태권도 진흥재단 조직도

3. 주요 시행사업

1) 체험 프로그램

▌ 1일 수련·체험 프로그램

❍ 태권도 시범단 공연 : 품새, 격파 등 태권도 시범공연

❍ 상설체험 : 관객참여형 프로그램

- 태권 줌바댄스 : 라틴음악, 태권도 기본동작, 율동을 접목한 태권체조
- The One 태권체조 : 태권도원 로고송에 태권도 시범안무를 접목한 태권체조

출처: 태권도원 홈페이지(http://www.tkdwon.kr),

[그림 3-4] 상설체험(관객참여형 프로그램)

▌ 태권도 IT체험 (체험관Yap!)

- ❍ 태권도와 관련된 가상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태권도 방문객들이 비교적 손쉽게 태권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함
- ❍ CHANGE 1 기초체력 체험실 : 스텝-터치, 지르기-차기, 스텝-차기, 레이저선통과, 균형잡기
- ❍ CHANGE 2 가상공간 체험실 : 겨루기체험, 태권체조체험
- ❍ CHANGE 3 전자겨루기 체험실 : 전자겨루기, 체험반응속도 측정 체험, 스피드 발차기 겨루기 체험

출처: 태권도원 홈페이지(http://www.tkdwon.kr),

[그림 3-5] 태권도 IT체험 (체험관Yap!)

▌ 태권도원 투어

❍ 방문객에게 투어코스를 제공, 태권도원 내 콘텐츠를 관람 및 체험할 수 있도록 투어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1코스 : T1경기장 투어 → 태권도 시범단 공연 관람(11:00) → 다함께 태권도(힐링 태권체조+태권 호신술) 체험(11:20) → 태권도 박물관 관람 → 전통정원/오행폭포 산책 → 전망대
- 2코스 : T1경기장 투어 → 태권도 시범단 공연 관람(11:00) → 다함께 태권도(힐링 태권체조+태권 호신술) 체험(11:20) → 태권도 박물관 관람 → 〈체험관 Yap!〉체험 → 도전! 격파왕 체험 (16:00) → 전통정원/오행폭포 산책 → 전망대

출처: 태권도원 홈페이지(http://www.tkdwon.kr),

[그림 3-6] 태권도원 투어코스

▌ 국립태권도박물관 견학

❍ 태권도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및 상설전시를 운영하여 방문객들에게 태권도의 근간 및 변화의 주제에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태권도 세계화에 관한 해외 진출 보급사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

2) 수련/연수 프로그램

▌ 프로그램(당일)

○ Learning(10종), Challenge(7종), Growth(7종), Healing(9종)으로 구분하여 총 33종 태권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표 3-2] 체험 프로그램(당일)

유형	프로그램명
Learning(10종)	태권도기본자세 / 자기방어 / 장애인태권도 / 태권응급처치 / AT체험 / 마인드컨트롤 / 발상훈련 / 진로탐색 / 폭력예방법 / 리더십실천게임
Challenge(7종)	체험관 Yap! / 일일국가대표 / 전자호구체험 / 전통무예수련 / 태권티어링/ 서예체험 / 장구체험
Growth(7종)	겨루기 / 격파 / 발차기 / 품새 / 태권밸런스 / 태권힐링테라피 / 태권도예절
Healing(9종)	걸어서태권도원 / 태권도심화명상 / 공동체놀이 / 태권어드벤처 / 힐링태권체조 / 레크레이션 / 웃음치료 / 종이도복 만들기 / 힐링아트페인팅

출처: 태권도원 홈페이지(http://www.tkdwon.kr),

▌ 대상별 프로그램(숙박)

○ 태권도 수련생, 학생단체, 기업 및 기관, 외국인단체, 동호회 등 일반다체를 대상으로 태권도 관련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표 3-3] 숙박 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내용
태권도 수련생	• 도전코스(체) : 한계 극복, 자신감 고취를 위한 단계적 프로그램. 태권팝스, 체험관 Yap! 체험 등으로 구성 • 도약코스(인) : 신체단련, 정신수양을 위한 프로그램. 발차기, 태권힐링테라피, 품새 등으로 구성 • 도달코스(지) : 예의, 인성을 함양하는 프로그램. 오행폭포수련, 겨루기, 격파 등으로 구성
학생단체	• 태권극기캠프(체) : 수련·체험 프로그램으로써 집중력, 도전정신을 함양. 태권도 기본자세 등으로 구성 • 태권리더십캠프(인) : 과제수행형 프로그램. 태권티어링, 태권도 기본자세 등으로 구성 • 도원상생캠프(지) : 공동체험 프로그램. 공동체놀이, 태권도 기본자세 등으로 구성
기업 및 기관	• 태권극기캠프(체) : 심신수련 프로그램. 조직 적응력 향상에 기여, 태권도 기본자세, 전통체력 수련 등으로 구성 • 태권리더십캠프(인) : 자연 기반 수련 프로그램. 리더십 배양. 힐링테라피, 태권티어링 등으로 구성 • 도원상생캠프(지) : 그룹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공동체놀이, 태권티어링 등으로 구성
외국인 단체	• 태권도 수련 및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 • 태권도 기본자세, 태권힐링테라피, 문화체험프로그램, 태권도원 등으로 구성
동호회 등 일반단체	• 휴양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출처: 태권도원 홈페이지(http://www.tkdwon.kr),

태권 체조	체험관 Yap! 체험
태권 기공	문화체험 프로그램

출처: 태권도원 홈페이지(http://www.tkdwon.kr),

[그림 3-7] 태권도원 프로그램 사례

3) 태권도진흥사업

▌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

○ 2009년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태권도진흥재단과 세계태권도연맹의 공동주최로 매년 전라북도 무주와 전주, 서울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음

○ 본 캠프는 태권도를 수련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교류 확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태권도 정신과 문화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 행사는 태권도원 견학, 특별 수련지도, 민속공연, 격파 이벤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출처: 태권도원 홈페이지(http://www.tkdwon.kr),

[그림 3-8]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

▌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World Taekwondo Culture Expo)

○ 전 세계 태권도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태권도의 대표축제로 전라북도 무주와 전주 일원에서 개최됨

○ 한국과 전라북도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태권도경기(품새, 겨루기, 태권도체조 등), 태권공연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체험, 인근 지역 관광투어 등을 행사의 일부로 구성하고 있음

출처: 태권도원 홈페이지(http://www.tkdwon.kr),

[그림 3-9]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

▌ 한아세안청소년태권도문화교류캠프

❍ 2014년 태권도진흥재단의 주최로 처음 시작된 '한아세안 청소년 태권도 문화교류캠프'는 전라북도 무주와 전주, 서울 일원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음

❍ ASEAN 10개국 태권도 수련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되는 본 캠프는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전통문화체험, 경복궁 관람 등)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4. 방문객 현황

❍ 태권도원 방문객은 2014년 개원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4년 165,470(2014.4 ~ 2014.12 집계), 2015년 250,780명, 2016년 272,165명, 2017년 336,554명으로 꾸준히 증가함
- 2018년도 방문객 현황은 6월까지 99,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표 3-4] 태권도원 방문객 현황

(단위 : 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65,470	250,780	272,165	336,554	99,000

주1) 2014년 자료는 2014. 4. ~ 12. 까지 자료임

주2) 2018년 자료는 2018. 1. ~ 6. 까지 자료임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2018)

▌ 내국인 방문객 현황

❍ 내국인의 방문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태권도원의 개원 첫해인 2014년(2014. 4 ~ 2014. 12)에는 152,089명이 방문하였으며 이후 2015년 230,075명, 2016년 241,000명, 2017년 309,250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린 2017년에는 지난해에 비해 방문객이 약 68,250명이 증가하여 태권도원 방문객이 큰 폭으로 증가함

○ 2018년 6월까지는 약 93,429명의 내국인이 태권도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표 3-5] 태권도원 내국인 방문객 현황

(단위 : 명)

년도	총 방문객	일일방문객	투숙객
2014년	152,089	91,601	60,488
2015년	230,075	86,230	143,845
2016년	241,000	99,109	141,891
2017년	309,250	154,208	155,042
2018년	93,429	35,526	57,903

주1) 2014년 자료는 2014. 4. ~ 12. 까지 자료임
주2) 2018년 자료는 2018. 1. ~ 6. 까지 자료임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2018)

▌ 외국인 방문객 현황

○ 외국인의 방문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태권도원의 개원 첫 해인 2014년(2014. 4 ~ 2014. 12)에는 13,381명이 방문하였으며 이후 2015년 20,705명, 2016년 31,165명, 2017년 27,304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린 2017년에는 외국인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3,861명)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6월까지는 약 5,571명의 외국인이 태권도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표 3-6] 태권도원 외국인 방문객 현황

(단위 : 명)

년도	총 방문객	일일방문객	투숙객
2014년	13,381	1,186	12,195
2015년	20,705	1,006	19,699
2016년	31,165	3,834	27,331
2017년	27,304	12,645	14,659
2018년	5,571	280	5,291

주1) 2014년 자료는 2014. 4. ~ 12. 까지 자료임
주2) 2018년 자료는 2018. 1. ~ 6. 까지 자료임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2018)

▌ 시사점

❍ 태권도원의 총 방문객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외국인의 방문객은 2017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1월부터 12월의 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년도인 2015년, 2016년, 2017년만을 두고 연평균 증감율을 계산해보면, 태권도원의 총 방문객 수는 2015년에서 2016년 약 8.5%가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서 2017년은 약 23.7%가 증가함
- 내국인 증가율 : 2016년 기준 전년 대비 4.7%. 2017년 기준 전년 대비 28.3%
- 외국인 증가율 : 2016년 기준 전년 대비 50.5%, 2017년 기준 전년 대비 -12.4%

❍ 통계 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보강자료로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태권도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특수목적방문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특수목적방문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단체방문객의 비율이 다소 높고, 이에 따라 그 증가폭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남

5. 태권도원 인식조사[26)]

○ 태권도진흥재단이 실시한 '수요자 대상 태권도원 인식조사(조사기간 : 2015.11)' 결과 응답자의 66.4%는 태권도원의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7] '세계 태권도 문화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문항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태권도원 위치 인식	33.6%	66.4%

자료 : 세계 태권도 문화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태권도진흥재단, 2015)

○ 태권도원을 방문하는 수요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문항에 태권도 관련자라는 응답이 92.5%로 나타남

- 태권도 관계자 46.9%, 수련자 25.9%, 유단자 19.7%, 일반 방문객 4.1%, 기타 3.3%로 나타남

[표 3-8] '세계 태권도 문화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문항	태권도 관계자	수련자	유단자	일반 방문객	기타
태권도원 수요자	46.9%	25.9%	19.7%	4.1%	3.3%

자료 : 세계 태권도 문화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태권도진흥재단, 2015)

○ 더불어 태권도원의 역할을 태권도의 수련 및 교류의 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단체 교류 및 만남의 장 23.1%, 고수들이 모인 성지 17.7%, 태권도 대회장 15.0%, 태권도를 활용한 놀이장 14.3%, 기타 2.7%로 높게 나타남

[표 3-9] '세계 태권도 문화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문항	태권도 수련의 장	만남의 장	고수들의 성지	태권도 대회장	태권도 놀이장	기타
태권도원의 역할	27.2%	23.1%	17.7%	15.0%	14.3%	2.7%

자료 : 세계 태권도 문화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태권도진흥재단, 2015)

26) 세계 태권도 문화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응답자 수 전국 340명, 조사기간 2015년 11월

○ 본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면, 태권도원을 태권도 관계자 혹은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향유하는 집단이 이용하는 태권도 전문기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태권도원의 매력도는 7점 만점 중 3.76점, 태권도원의 인지도는 7점 만점 가운데 2.97점으로 나타나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0] '세계 태권도 문화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문항	평균 (7점 만점)
태권도원의 매력도	3.76점
태권도원의 인지도	2.97점

자료 : 세계 태권도 문화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태권도진흥재단, 2015)

○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 태권도원을 전문적 공간으로 인식함에 따라 태권도원에 신기성 및 매력성을 느끼지 못함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제2절 전라북도 태권도자원

1. 태권도 자원의 범위

❍ 태권도원과 전라북도 태권도 자원의 연계방안을 설정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립한 「태권도의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문재인정부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을 면밀히 분석함

❍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의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문재인정부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의 5대 추진전략 '하나인 자랑스러운 태권도' 및 10대 핵심과제의 '5. 태권도의 상징성강화'를 태권도원과 전라북도 태권도 자원의 연계방안 설정을 위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본 과제에서의 태권도 자원의 범위를 설정함

❍ 본 과제에서는 연계방안 설정을 위한 태권도 자원을 '태권도의 유·무형 역사자원'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전라북도 내 태권도 유·무형 역사자원을 발굴하고 재정립함

2. 전라북도 유형 태권도 역사자원

1) 5대 기간도장의 태동

❍ 대한민국 태권도장은 1940년대 서울을 중심으로 5대 기간도장이 개관하며 시작되었음

❍ 송무관 본관이 1944년 개성에서 처음으로 개관하였고 이이서 같은 해 청도관 본관이 서울에 개관되었음. 이어서 1946년 연무관, 무덕관, 창무관 본관이 연이어서 서울에 개관되었음

❍ 서울, 경기에 태권도 기관도장 본관이 개관한 후 지방도시에 지방본관이 설치되었음

2) 전북 태권도의 첫 보급

○ 전라북도는 1947년 연무관(후에 지도관으로 명칭을 개정함) 지방본관이 개관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이르게 태권도가 전파되었음

○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전북 지역에 태권도가 유입된 이유는 연무관 관번 2번인 전일섭이 군산세관의 경비 책임자로 부임하며 태권도장을 설치했기 때문임(최윤규, 김동영, 김해인, 2016 a)

[그림 3-10] 일제강점기 군산세관 현재 모습

○ 일제강점기 세관은 수출입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담당했음. 일반인의 접근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밀수를 단속하는 역할을 수행함

○ 밀수와 관련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세관에서 경비 책임자는 주요 업무였음

> “그 당시만 해도 밀수가 엄청나게 성행했어요.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배가 그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이 밀수라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꼭 깡패들 그런 놈들이 꼭 했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에서 군산으로 오시지 않았나 싶어요.” -김혁종, 2018. 8. 28-

○ 전일섭은 연무관을 설치한 전상섭의 친동생으로 연무관에 두 번째로 입관해서 태권도를 수련했음

○ 군산세관으로 발령을 받은 전일섭은 군산출신의 김혁래와 함께 1947년 5월 군산에 연무관 지관을 설치했음(최윤규 외, 2016 a)

> "군산에 지관을 설치했다 초창기에는 '전일섭 사범' '김혁래 주장'으로 불렸다가 나중에는 전일섭 관장, 김혁래 부관장으로 불렸다. 황해도 출신의 전일섭은 1921년생, 김혁래는 1927년생이니 당시에는 모두 20대였다." -최윤규 외(2016 a), 46쪽.

○ 전북에 최초로 태권도를 전파한 전일섭과 김혁래의 인연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음. 이에 대해 김혁래의 동생 김혁종은 서울 연무관에서 전일섭과 김혁래가 같이 태권도를 수련했다고 증언함

> "(김혁래 형님이) 서울에서 태권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어려서 잘 몰랐는데. 아마 학교 좀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을지로 3가에 있었던 연무관인 한국체육관에서 운동을 했어요." -김혁종, 2018. 8. 28-

> "그때 군산에 발령이 나서 왔어. 군산오기 전에는 한국체육관(당시 연무관)에서 (태권도) 했지. 한국체육관이 누구냐면 전상섭씨. 하여튼 전상섭씨, 이종우 관장 등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 분이 전상섭씨지. 전 관장도 친형님이지만 거기서 배웠고.(유병룡, 전주지도관 1대 사범)" 최윤규, 장세길, 김수지(2016 b). p.28

○ 전일섭과 김혁래는 비슷한 시기에 연무관 본관에서 태권도를 시작했음

> "제가 지금 듣기로는 전일섭관장이라 우리 형님이랑 운동 시작한 것이 불과 얼마 차이 안 난다고 들었어요." -김혁종, 2018. 8. 28-

○ 김혁종은 함께 태권도를 수련하던 김혁래가 전일섭의 제의에 따라 고향으로 같이 내려왔다고 기억함

“(전일섭 관장이) 군산세관으로 발령 난 것 같아요. (김혁래와 전일섭이) 같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이 내려와서 갈 곳이 없어서 우리 집에 있었어요. 우리 집에.” -김혁종, 2018. 8. 28-

3) 최초의 전북 태권도장, 군산종합체육관

○ 전일섭과 김혁래는 현재 전북 군산시 대학로 12(영화동 9-6)에 전북 최초의 태권도장을 개관했음

[주소 : 군산시 대학로 12(영화동 9-6)]

[그림 3-11] 최초의 전북 태권도장 현재 위치

○ 당시 태권도장은 태권도 전용 체육관이 아닌 역도와 권투, 유도를 같은 공간에서 수련하는 종합체육관이었음. 당시 이곳의 명칭은 ‘군산종합체육관’이었음

○ 군산종합체육관은 포목점이던 2층 건물을 개조해서 1층에 역도, 2층에 태권도와, 권투, 유도 종목을 수련했음(최윤규 외, 2016 a)

○ 태권도가 군산종합체육관에 설치될 때에 대해 김혁종은 군산시 체육회에서 공간을 마련하여 여러 종목을 입주시켰다고 증언함

“당시 군산 종합체육관 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역도부, 권투부,

유도부, 당수부(태권도) 그랬어요. 세 개 종목이 전부 같이 들어갔어요. 그 당시 군산시 체육회라는 게 발족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들어갔어요" -김혁종, 2018. 8. 28-

"군산체육관 2층인데 나도 가봤어. … 내가 볼 때 개관이 아니라 체육관에 가면 작은 공간에서 권투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몇몇이 운동하는 거였어. 모여가지고 한 것 같아.(유병룡, 전주지도관 1대 사범)" 최윤규 외(2016 b). 28쪽

○ 전일섭이 근무했던 옛 군산세관은 군산시 해망로 244-7(군산시 장미동 49-38)에 위치했음. 당시 태권도장이 있던 군산종합체육관과 거리는 500여m로 도보로 8여분이면 도착할 수 있음

4) 고사동 전북종합체육관

○ '전북체육 100년사'(2002)에 따르면 전북종합체육관은 1955년 4월 15일 준공, 7월 20일 개관하였음. 당시 유수복 전북도의원이 관장으로 취임함

자료 : 체육발전연구원(2015). p.88

[그림 3-12] 전북종합체육관 개관 기념

○ 전북종합체육관의 위치는 현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28-7(고사동 462-8)로, 현재 전주영화호텔 옆 건물이 들어선 위치임

○ 체육관 개관 이전에 일제강점기 신사로 사용되던 건물이었음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28-7]

[그림 3-13] 전북종합체육관 현재 위치

"이쪽 골목은 없었어. 교회가 여기 하나 있을 건데. 아. 저쪽에 중앙교회 있구나. 중앙교회까지는 (전북종합체육관이) 아니고, 사무실이 여기에 있었어" -유병용, 2018. 8. 22-

○ 전북종합체육관 개관 자금은 체육인들의 성금으로 마련되었고, 군산종합체육관처럼 여러 종목이 같이 공간에서 수련하는 복합 수련관이었음

"6·25가 끝나고 체육을 했었던 사람들이 성금을 모아서 지은 것이야, 체육을 사랑하고 체육을 했었던 사람들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종합체육관을 짓게 된 거지 전주에만.(강영수, 전 전북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최윤규 외(2016 a). p.73.

○ 군산에서 전북 지역에 태권도를 전파하던 전일섭은 유수복 관장의 초청으로 전주종합체육관에 태권도부를 창설하고 거주지를 전주로 옮김

"1955년 4월 15일에 전북체육관이 종합체육관으로 준공하고 유수복 씨가 관장으로 취임해 7월 20일에 개관했으며, 그 뒤 10월 22일에 전일섭 관장이 태권도 사범으로 취임했다.(전북체육100년사, 2002)."최윤규 외(2016 b). p.29 재인용.

자료 : 최윤규 외(2016 a). p.73

[그림 3-14] 1955년경 전북종합체육관에서 전일섭

❍ 전북종합체육관이 개관할 당시 주변은 중하층이 모여 사는 한옥 주거지였음

"그 땐 (전북종합체육관 주변에) 집들만 있었어. 일본식 가정집이 아니고 한옥이었을꺼야. … (주변에 살던 사람들인)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니고 중간 정도사는 사람들었어" -유병용, 2018. 8. 22-

❍ 당시 전북종합체육관은 넓은 공간에 마루를 깔았고, 운동 후 씻을 수 있는 샤워장이 마련된 필수 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됐었고, 사무업무를 볼 수 있던 사

무실 공간도 갖추고 있었음

"그때는 넓게 보이지. 지금은 이렇게 좁게 보이잖아. 그때 보면. 저기 울타리도 있고 하니까. 여기도 아마 나중에 울타리 있던 것을 레슬링 하면서 건물 짓고. 벽돌로 이어버려서. … (가운데 공간에) 마루를 다 깔아서. 사무실은 여기. 앞에 옆에, 조그만 하게 있었어 … 전북종합체육관은 시설도 좋고, 샤워장도 좋고 다 모든 것이 있으니까" -유병용, 2018. 8. 22-

○ 전북종합체육관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던 관원은 2, 3백명으로 추정됨. 당시 관비와 입회비가 각각 100원이었던 점과 6.25 전쟁 직후인 시기적 상황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숫자임

"(고사동 전북종합체육관 시절) 관원이 2, 3백 명쯤 됐을거야" -유병용, 2018. 8. 22-

5) 전북 처음 태권도 전용, 척성동체육관

○ 전북종합체육관은 여러 종목과 함께 시간대를 나누어 수련하던 형태였음. 따라서 수련이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과 마찰이 잦았음

○ 그 결과 태권도는 전북종합체육관에서 개관한 약 2년 후인 1957년 독립하여 첫 태권도 전용체육관을 열게 됨. 태권도 전용 체육관을 개관함으로써 독립적인 체육관 운영이 가능해짐

"내가 볼 때 전 관장하고 있어 그 관장하고 사이가 나빴어. 또 독립해야 할 입장이었고. 전관장하고 있어 그 관장하고 사이가 나빴어. 또 독립해야 할 입장이었고. … (독립 후 좋은 점은?) 누가 관여할 사람이 없잖아." -유병용, 2018. 8. 22-

○ 전북 첫 태권도 전용 체육관이 문을 연 지역은 당시 척성동에 위치했고 현재는 고사동 지역임.

○ 정확한 주소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2길 35(다가동3가 108) 부근으로 양복 2차선의 도로에 안쪽으로 들어간 골목에 위치하고 있었음.

> "아~ 이 근방이여. 건물이 이렇게 서버렸으니. 저기 큰 건물 있잖아. 그쪽 뒤에 위치했어." -유병용, 2018. 8. 22-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2길 35 인근]　　자료 : 최윤규 외(2016 a). p.78

[그림 3-15] (좌)척성동 체육관 현재 위치, (우)1957년 척성동 체육관 당시 모습

○ 척성동체육관은 구 다가동파출소 근처의 된장이나 간장을 만들던 장공장 건물이었음

> "(전북종합체육관에) 한 3년 있었던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 안으로. 다가동. 장 공장, 창고로 이사를 했지. 태권도만 이사했지. … (옮긴 곳이) 그 당시에 장공장인데. 공장이 이제 다 망해가지고 우리가 새로 들어갔지 … 어디인가 하니. (다가동)파출소가 저쪽에 있잖아? 파출소에서 와서 여기 그 건물 있는데" -유병용, 2018. 8. 22-

○ 척성동체육관의 규모는 약 50평 규모였지만, 태권도 수련을 위해 바닥에 마루를 깔았지만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했음. 수련 시설도 샌드백 하나만 달린

열악한 환경이었음

> “폐 공장에다가 (척성동체육관) 바닥에 마루는 우리가 깔았고, 샌드백만 깔았고. 사무실도 골목 들어가서 앞에다가 만들었어. 골목 들어가면 이제 옆쪽으로 사무실 하나 조그만 한 거 하나. (사무실에) 책상 놓고. … 여기서부터 이제 공장 있는 데. 한 50평이나 될까.” -유병용, 2018. 8. 22-

○ 1950~60년대 전북 태권도는 현재 UFC와 K-1 처럼 이종 격투기와 유사했음. 따라서 매우 위험한 운동으로 주 수련층도 고등학생 이상의 젊은 청년들이었음(최윤규 외, 2016 b)

> “태권도라는 것이 결국 와서는 우리한테 배울 때 ‘한방에 죽는다’라는 그런식으로 배웠고 민간인도 함부로 안 배웠어. … 당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왜냐하면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은 위험해서 배울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안 가르쳤고(유병용, 종합체육관 1대 사범), 그 당시에는 그냥 뭐 한번 치면 손발이 끊어지는 줄 알았어. ‘죽는다’ 이거야 그렇게 위협적인 운동으로 들었거든(최영렬, 전 경희대 태권도학과 교수)”(전북연구원, 2016 b, p.31).

○ 당시 척성동은 빈곤층이 거주하는 낙후지역으로 관비를 내고 태권도를 수련할 대상이 매우 적었음. 더불어 척성동체육관 인근에 주 수련층이던 고등학생들이 다니던 고등학교가 없었음

> “(척성동체육관 주변) 형편없는 집들이었거든. 저쪽(전북종합체육관) 주변보다 더 못살았지. … 당시 척성동체육관은 고등학교와 거리가 멀었어.” -유병용, 2018. 8. 22-

○ 척성동체육관 시절 열악한 운동시설과 주 수련층이던 고등학생들이 접근성 문제로 관원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음

“(전북종합체육관 관원은) 한 2,3백 명쯤 됐어. 여기로(척성동체육관) 와서는 한 백여 명, 2백 명은 못 됐어. … 종합체육관에서 2, 3백 명까지 있었고. 이쪽으로 왔더니 한 백 명이 떨어졌고. … 들어오긴 들어와. 한두 명씩이나 왔나. 한 달이면 몇 십 명 아니야. … 그치 그건 이제 차이가 생기지. 여기는 반파했지(건물이 낡았지). 거기는 시설도 좋고 샤워장도 좋고 다 모든 것이 있으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관원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데 힘들었어.” -유병용, 2018. 8. 22-

6) 전북 태권도 전성기, 경원동체육관

❍ 태권도 관원의 감소는 태권도 존폐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고, 체육관 이전이 논의되었음

“아 누가 여기 찾아와. 여기는 학교. 중, 고등학교교가 없어. 여기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지. 말하자면, 이렇게 되면 체육관이 없어진다. 전주시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로 지도위원을 만들어 놨거든. 그때 이사회 사람들이 회의해서 (태권도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지.” -유병용, 2018. 8. 22-

❍ 논의 결과, 척성동체육관 개관 2년 만인 1959년 체육관을 전라북도카톨릭센터 인근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화원1길 49(경원동 3가 28-21)로 이전함. 경원동체육관 부지는 현재 원룸으로 바뀌어 있음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화원1길 49]　　자료 : 최윤규 외(2016 b). p.38

[그림 3-16] (좌)경원동 체육관 현재 위치, (우)경원체육관 당시 모습

○ 경원동으로 이전한 이유는 당시 경원동이 고등학교들과 인접해 있어 주 수련생층인 고등학생들의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임

> "당시 상업고등학교. (현재) 제일고등학교가 현재 위치에 있었고. 농업고등학교도 그곳에 있었고. 예전에는 영생고등학교 남노송동에 있었고. 서중학교 옆에가 공업고등학교는 자리야. 하여튼 학교가 경원동를 중심으로 해서." -유병용, 2018. 8. 22-

○ 당시 경원동체육관 부지는 개발이 안 된 논밭 등 경작지가 주를 이루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지 비용도 저렴했음. 부지를 마련한 후 경원동체육관 건물은 신축되었음

> "밭을 사가지고. 내가 우리 집 담보 받아서. 그놈 가져다가 담보대출 받아서. 지었지. 이쪽으로 도랑 있었고. 얘들은 돌아서 이쪽으로 들어갔지." -유병용, 2018. 8. 22-

○ 체육관과 더불어 전일접 관장이 머무를 집도 같이 신축했음. 유병용은 위 사진 속 흰색 건물이 전일섭 관장의 집으로 기억했으며, 당시 건물이 그대로 있다고 증언하였음.

“여기는 밭이었는데. 흰색이 전관장님 집. … 이것이 우리가 지은 것이야. 이 앞이. 저건 우리가 지은 거야. 그것이 체육관 앞에야 말하자면. 전 관장 집을 같이 지었어. 체육관하고… 여기에 전관장이 살았지. 본래 (체육관과 전 관장집이) 이어져 있었어. … 1960년 여기 지어놓고. 우리가 일본 애들하고 시합 나왔어. 60년 아마 여기가 들어갔을 거야. … 59년인 것 같다.” -유병용, 2018. 8. 22-

○ 유병용 관장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전일섭 관장의 경원동 사저는 전북에서 태권도가 태동하던 시기에 관련 건물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 경원동체육관으로 이전할 당시 인근 지역은 신문사와 여관, 전주 가톨릭센터 등 상업건물과 밭 등 경작지가 혼재되어 있었음.

“여기가 유명한 여관이야. 상고여관. 그때 모르는 사람이 없지. … 여관하나 있었고, 삼남일보(당시 전북 지역 신문사) 있었고. 여기는 밭이었는데. 흰색이 전 관장님 집. … 맞어. 그때도 가톨릭센터는 있었어. 간판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 놨었거든 이렇고 롬.” -유병용, 2018. 8. 22-

○ 새롭게 신축된 경원동체육관은 60평 규모의 콘크리트 건물로 바닥에 마루를 깔았고, 샤워장, 화장실 등을 갖춰 수련에 필요한 시설물을 모두 갖춘 최고 시설로 조성됐음. 앞 경원동체육관 사진에서 콘크리트 블록과 슬레이트 지붕으로 지어진 체육관을 확인할 수 있음

“시멘트로 해놓고 유리창 놓고. 지붕은 그 슬레이트로 지었어. 나무로 이렇게 걸쳐가지고. 나무로 천장 만들고. 샤워장은 저쪽으로 만들어 놓고. 변소가 뒤에 있고. … 화장실 만들고, 마루 깔고 … 체육관은 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사무실. 여기 60평이야. 체육관만 60평

이었을 것 같다.” -유병용, 2018. 8. 22-

○ 주 수련층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하고 신축 건물에 당시 첨단 시설을 갖춘 이후 수련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됨. 유병용은 수련생이 가장 많았던 수는 600백 명이 넘었고, 당시 전북 태권도장 가운데 가장 많았다고 증언함

“경원동으로 옮기고 하루 600명까지 (수련을) 받았으니까. 전국에서 랭킹 1위고. 하루 600명.” -유병용, 2018. 8. 22-

○ 경원동체육관 관원이 척성동체육관에 비해 3배 가량 증가된 결과, 수련 시간대의 증가로 이어졌음, 유병용은 수련 시간대를 하루 5 또는 6회로 기억함. 경원동체육관 당시 사진 속 수련시간표를 보면, 아침부가 6시 시작했고, 1, 2, 3, 4부가 각각 4시, 6시, 7시, 8시에 시작해 1시간 가량 진행됐음

“6백 명 한 번에 수련한 것이 아니라. 아침부 있지. 1부, 2부, 3부, 4부. 하루 5부인가 6부 인가 있었어.” -유병용, 2018. 8. 22-

자료 : 최윤규 외(2016 b). p.33

[그림 3-17] 1967년 경원동체육관 시간표

○ 경원동체육관 시절 이제 막 경기화를 이룬 태권도 종목에서 전북이 압독적인 경기 성과를 거둠

○ 태권도 종목은 1962년 제43회 대구 전국체육대회 시범종목을 거쳐 1963년 제44회 전주 전국체육대회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음

○ 전국체전 태권도 첫 정식종목에서 전북 대표팀은 단체전 방식으로 치러진 중학부, 고교부, 대학부, 일반부 가운데 일반부를 제외한 3개부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를 휩쓸었음

[표 3-11] 1963년 제44회 전주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종목 결과

구분	경기 결과
중학부	고산중(전북) 2-0 경희중(서울)
고교부	전주고(전북) 5-0 청주고(충북)
대학부	전북대(전북) 3-1 성균관대(서울)
일반부	1위 한국체육관, 2위 청도관수원본관

자료 : 최윤규 외 (2016 b), p.58

○ 전북 태권도팀은 단체전에서 개인전으로 변경되어 개최된 1964년 제45회 인천 전국체육대회에서 태권도 21개 체급 가운데 8체급을 우승했음. 1965년 제 46회 광주 전국체육대회에서 태권도 25개 체급 가운데 9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음. 46회 대회에서 서울 지역 대학으로 진학한 최영렬과 유기대 등 전북 출신 선수들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음

[표 3-12] 1964년 제45회 인천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종목 전북 우승 결과

대회	구분	경기 결과
제45회 인천체전	학생중기	신희석(플라이급), 상광호(페더급), 송기택(라이트급)
	일반중기	조현호(헤비급), 김영택(플라이급)
	일반고기	최동진(플라이급), 문창규(라이트급), 조섬선(미들급)
제46회 광주체전	학생중기	오윤섭(플라이급), 유형환(밴텀급), 정금식(페더급), 최권열(라이트급)
	일반고기	문한종(핀급), 최동진(플라이급), 김용전(페더급), 최광식(웰터급), 조섬선(미들급)

자료 : 최윤규 외 (2016 b), p.58 재구성

7) 옛 전주공설운동장

- 지도관 1대 관장을 지낸 윤쾌병[27]이 일본에 머무르며 일본 가라데와 대한수박도(당시 태권도 명칭)의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였음
- 태권도가 태동하던 시절 전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약속대련 위주의 겨루기를 연마했던 반면 전북 지역은 실제 상대방을 가격하는 실전 겨루기를 수련하였음
- 약속대련은 겨루기를 통해 승패를 결정하기 어려웠던 반면 실전 겨루기는 득점을 통한 경기가 가능함. 이와 같은 이유로 전북 지역의 실전 겨루기가 한국 태권도와 일본 가라데 겨루기에 적합함
- 1961년 일본 가라데 대표팀 10명이 전주를 방문하여 5월 13일 첫 한일무도 친선경기가 개최됨
- 첫 한일무도 친선경기는 대한수박도회(지도관, 무덕관) 주관으로 공수도지도관 전북본관 주최로 전주공설운동장(농구장)에서 개최되었음

27) 1923년 생인 윤쾌병은 일본 유학으로 간사이의과대학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수의대학 교수를 거쳐 한국 아쿠르트 창립했다. 일본 유학 시절 가라데를 연마했던 윤쾌병은 한국과 일본의 무도 교류에 힘썼다.

【歡】 韓·日 親善 【迎】

空手道大會

日本空手道選手團來全

日時 4294年5月13日 下午1時

場所 全州公設運動場 (籠球場)

主管 大韓手搏道会 (智道館, 武德館)

主催 空手道智道館全北本館

後援 全羅北道体育館. 全北日報社

三南日報社. 全羅新聞社

자료 : 최윤규 외(2016 a). p.38

[그림 3-18] 1961년 한일무도 친선대회 안내서 표지

❍ 현재 전주공설운동장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덕진동 1가 1220-1)에 위치하고 있음

❍ 하지만 1961년 당시 전주공설운동장은 현재의 위치가 아닌 다른 장소에 위치하고 있었음

전주 인봉제

전주국립박물관은 전주 노송동 지역을 후백제 궁성 일대로 상정하고 도성의 형태나 방어체계를 새롭게 설정, 발표했다. 곽장근 군산대 교수는 왕궁터는 인봉리 일대로 본래 방죽이 있었던 곳이었다며, 일제강점기에 방죽을 메워 공설운동장으로 활용했으며, 현재는 대규모 주택단지들이 들어서 있다.

…

오늘날 문화촌(文化村)이라고 불리는 중노송동 옛날 공설운동장 자리가 방죽이었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기린봉 기슭을 타고 흘러내린 계곡물과 빗물이 흥건하게 고였으며 주변에는 오래된 정자나무들이 듬성듬성 서 있어 여름철 피서객들이 모여드는 도시 중심변의 유일한 유원지였다. 6.25사변 이후까지도 그 아름다운 정취가 시민들의 눈길을 자주 끌어 들었는데 그 자리를 메우고 1949년 전주 공설운동장을 만들었다. 상단은 경마장, 하단은 공설운동장이 되었는데 주로 하단을 인봉리 방죽이라고 했다. 이후 전주종합경기장은 설립 당시 시민들의 성금으로 건설비가 충당되고 지난 1963년 제44회 전국체전시에 현재의 자리로 이전했다.

자료 : 새전북신문. 2018년 5월 9일자 새전북신문 온누리 칼럼[28)]

❍ 당시 공설운동장은 현재 중노송동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전북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 일대에 위치했음

28) 새전북신문. 2018년 5월 9일자 새전북신문 온누리 칼럼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326&replyAll=&reply_sc_order_by=I)

자료 : 최윤규 외(2016 b). p.50

[그림 3-19] '한·일 친선 공수도대회'개막식 모습

○ 한일무도 친선경기가 열렸던 농구장은 현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림 3-20] 옛 전주공설운동장 현재 모습

8) 이리역 중심의 무덕관

○ 무덕관은 해방 직후 서울 용산역을 중심으로 철도국 운수부에서 시작됐었음(강원식, 이경명, 2002)

○ 초기 무덕관 수련생은 철도국 직원이 대부분이었으며 각 지방의 기차역 창고에도 태권도장이 개관되었음(최윤규 외, 2016 a)

○ 지금도 호남선과 전라선 분기점인 익산은 일제 강점기부터 기차역이 발달하였음. 이러한 배경으로 1955년 익산역 목욕탕에 무덕관이 개관되었음.

> "황기 관장의 수제자로 철도청 직원인 오용균이 1955년 7월에 익산역 안의 목욕탕 빈 공간에서 시작했다. 당시 열차는 석탄을 연료로 쓰는 증기기관차였기 때문에 역사마다 목욕탕이 딸려 있었으며, 목욕탕의 빈 공간에 간단한 운동기구들을 갖춰놓고 철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가르쳤다. 초창기에는 김수길, 최낙환, 임순호, 이승수, 김응길 사범 등이 오 관장을 도와서 가르쳤다. 그러다가 1958년 8월부터는 일반인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으며, 1961년에 정읍지관(조규수 사범)을 시작으로 신태인(박효준 사범), 고산(김정수 사범), 대야(박장규 사범), 익산 정의(이상인 사범) 등에 잇달아 지관을 냈다."(익산시사, 2002, p.2074)

○ 전북 지역의 다른 지역에서 지도관이 주를 이뤘던 반면 익산은 무덕관이 먼저 개관되었음

> "이리(현 익산)는 늦게 들어갔어. 이리에 다른 도장이 있었어. 무덕관하고 창무관이 있었어. 지도관이 좀 늦었어."(최윤규 외, 2016 a. p.78)

○ 현재 익산시 익산대로 153(창인동 2가 1)에 위치한 익산역은 1915년 1월 1일 이리역으로 시작되었음, 1977년 11월 11일 이리역 폭발사고로 전체가 파손되었고, 1978년 신축하였음.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의 통합으로 익산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3. 전라북도 무형 태권도 역사자원

1) 태권도 겨루기의 메카

▌ 실전 겨루기

❍ 무예로 스스로 심신을 수련하던 태권도는 겨루기를 통해 승패를 결정하는 경기 스포츠로 발전됨

❍ 태권도협회가 체제를 갖추지 못한 6 · 25 전쟁 이전 실제 상대방을 가격하지 않고 멈추는 약속대련을 주로 수련함

❍ 약속대련은 한자로 '촌지방식(寸止方式)', 일본어 '슨토메(寸止め) 방식'으로 불림

❍ 약속대련이 주를 이루던 다른 지역과 달리 전북 지역 태권도는 실제 상대방을 가격하는 실전 겨루기를 수련했음

> (태권도 수련) 목표는 겨루기거든. 말하자면 태권도 주목적은 내 기술 연마지. 겨루기가 중점적으로 태권도를 하려면 많이 해야지. 많이 부딪혀야 하고."-유병용, 종합체육관 1대 사범-(최윤규 등, 2016a, p.76)

❍ 강원식 전 국기원장에 따르면 "태권도 경기화에 앞장선 지도관은 지관별로 대회를 하면서 직접 타격으로 전환했지만 청도관과 송무관 등은 끊어서 쳤다."[29](태권라임 미디어, 2012. 02. 04.)고 증언

▌ 겨루기 수련 방식

❍ 전북 지도관에서 수련생은 입관 후 한 달 동안 기본기를 익힌 후 바로 실전 겨루

29) 태권라임 미디어, 2012. 02. 04. <논단> "1960년대 태권도 경기화 과정, 1950년대 말까지 '초지방식' 대련 성행". (http://taekwonline.com/detail.php?number=2603&thread=)

기를 연마했음

"(입관하면 바로) 대련을 바로 시작해. 근데 그걸 알아야 돼. 두 줄 세워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발로 차고 막고, 발로 차고 막고' 형식적으로 다치니까 그런 식으로 겨루기(약속대련)를 했지. 한 달 넘으면 실질적으로 겨루기를 했지. 주로 약속대련은 안했어. 말하자면 연습할 때도 사정없었어. 그러다보니까 애들이 독기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런 점이 전라북도가 다른 데하고 달랐지."-유병용, 종합체육관 1대 사범-(최윤규 등, 2016a, p.75)

○ 실전 겨루기는 체급과 실력, 연령에 상관없이 1대 1로 방식으로 여러 명과 번갈아 가며 연속적으로 실행됐음

"대련시간, 그럼 유급자들 죽을 맛이지. 살살 꽁무니 빼고. 그래서 항상 '서' 하면 서로 저쪽에 서. … 여기가 도장이면 여기가 국기가 있고, 이쪽부터 고단자부터 서는거야. 이쪽에 제일 악바리가 있어. 그럼 서로 안 할라고, 뒤에 가서 '우글우글' 해 뭔 이야기인가 알았지? … 유단자 서고 유급자 서고, '차렷 경례' (대련 한번 하고), '바꿔' (이렇게) 쭉 돌려."-강영수, 전 전북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도장에서 연습할 때 쭈~욱 서면 내가 처음에 들어가, 덩치 크고(하니까). 내가 타격 목표가 되는 거야, 어 엄청 맞았어. … 내가 방과 후에 가서 딱 1시간만 하거든. 겨루기를 하면 자꾸 불러내는 거야. 내가 겨루기를 언제 해봤어야지. 가서 하는데 유단자들한테 엄청 맞았어. 유단자 쭉 서있고 돌아가는 거야, 하여튼 엄청 많이 맞았어."-최영렬, 전 경희대 교수-(최윤규 등, 2016a, p.75)

자료 : 최윤규 외(2016 b). p.36

[그림 3-21] 1950, 60년대 겨루기 수련 사진

○ 이러한 훈련방식은 상대방의 실력이나 체급을 고려하지 않고 겨루기를 실행했기 때문에 관원들의 겨루기 실력 향상에 크게 기여함

○ 더불어 겨루기를 반복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스스로 기술을 향상시킴

"유단자랑 8급도 붙고 그런 건 관계없어. 유단자가 가르쳐 주면서 겨루기도 했어. 급수가 같으면 심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다쳐. 그렇게 해야 겨루기가 늘어. 자기들끼리만 하면 안 늘어. 잘하는 놈들한테 배워야 늘지. 내가 일일이 못하거든. … (태권도 수련) 목표는 겨루기거든. 말하자면 태권도 주목적은 내 기술 연마지. 겨루기가 중점적으로 태권도를 하려면 많이 해야지. 많이 부딪혀야 하고. … 사람이 순간적으로 분하고, 아프면 짜증도 나. 하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면 수양이 돼. 그것이 아니다. 많이 맞았다고 해서 분한 게 아니다. 내 기술이 모자라고 체력도 모자란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이기려면 그만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걸 본인이 느껴야 하고. … 그래서 겨루기를 돌아가면서 시킨 거지. 열 명이랑 운동했다고 하면 안 해본 사람과 해본 사람, 실력이 천지 차이로 나는 거지. 내가 발차기나 기술이 얼마

나 발전시킬 것인가를 목표로 삼아서 해야지."-유병용, 종합체육관 1대 사범-(최윤규 등, 2016a, p.76)

○ 전북 지도관에서 겨루기는 승급과 승단심사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평가항목이었음

○ 심사 대상자는 겨루기에서 한 번 승리해서 합격하지 못했음. 패배할 때까지 연속적으로 경기를 치러야 했음

"(승)단심사를 보는데, 아우 그냥 이상해, 한번 치면 (상대가) 넘어지는 거야. … 그때만 해도 단심사를 승발전으로 하는 거야. '승발전', 붙어서 (상대방이) 지면 딴사람이 와서 또 하는 거야. 또 하고 또 하고 7명을 했어. 7명을 딱 이기니까, 관장님이 '최영렬! 승자는 내가 됐으니까 그만하라. … 다 쳐 눕혀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다 떨어지는데'(라고 말씀하셨다). … 지면 (승단에서) 떨어지거든."-최영렬, 전 경희대 교수-(최윤규 등, 2016a, p.77)

○ 체급과 연령에 상관없이 겨루기를 실행했던 전북 지도관 방식은 초기 태권도 겨루기 경기방식인 '단체 승발전(勝拔戰)'으로 발전하였음

○ 초기 태권도 겨루기 방식인 '단체 승발전'은 양 팀의 선수를 5명으로 구성하고 체급과 연령에 상관없이 양 팀이 한 선수씩 출전하여 겨루는 방식임. 전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가 이어서 출전할 수도 있음(태권라임 미디어, 2012. 02. 04)[30]

○ 전북 지도관 단체승발전 방식은 서울 지도관 본관에서 승급승단 심사에서도 활용됐을 뿐만 아니라 겨루기 대항시합에서도 사용되었음

"지도관은 1955년 12월 18일에는 '금년도 일반유급유단자진급승단 심사와 단체 및 개인 대항시합'을 한국체육관에서 개최키로 했다는 '동아일보'에 기록되어 있다. 당시 심사규정과 참가자격을 옮겨보면 다

30) 태권라임 미디어, 2012. 02. 04. <논단> "1960년대 태권도 경기화 과정, 1950년대 말까지 '초지방식' 대련 성행". (http://taekwonline.com/detail.php?number=2603&thread=)

음과 같다. ▪심사자격 : 육 개월 이상 수련한 무급유급유단자, ▪지부대항 : 도장단위 5명씩(단급제한 없음) 개인선발전 각급단별로 정함"(허인욱, 2004, 88쪽).

2) 태권도 대회의 중심

▌ 전북 시군대항 겨루기 대회

○ 승발전 겨루기 방식은 수련생들의 실력향상으로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발굴되었고, 이들은 크고 작은 시군대항 겨루기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음

○ 전북종합체육관에서 독립한 태권도는 척성동체육관을 개관한 후 전북지역 다른 지역에 태권도 보급에 힘쓰기 시작함

○ 전북 지도관에서 배출된 사범들이 시군에 자리를 잡으며 태권도를 보급함

"(군산과 전주를 제외하고 시군에) 제일 처음 보급된 게 정읍이야. 군산 있고, 전주 있고, 정읍 가고, 김제 그 다음이 남원. 이리(현 익산)는 늦게 들어갔어. 이리에 다른 도장이 있었어. 무덕관하고 창무관이 있었어. 지도관이 좀 늦었어-유병용, 종합체육관 1대 사범-(최윤규 등, 2016a, p.78)

○ 전북 지역 전 시군으로 보급된 태권도는 서로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크고 작은 각종 대회를 개최함

"지역대항은 바로 시작했지. … 타이틀이 있는 시합을 했지. 타이틀이 없으면 절대 시합을 안 했어. 대개 배(杯)[31]로 했지. … 선수권대회엔 각자 참가비를 내고 나가는 거고. 배일 때는 누군가가 돈을 내서 하는 거고. 아니면 시장이나 관공서가 돈은 안내고 시장 배라는 이름을 쓸

31) 장관이나 자치단체장, 협회장 명의로 주는 상배(賞杯)를 두고 우승을 겨루는 경기방식.

수 있도록 협조만 (받아 대회하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당시에 협회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선수권대회 가지고 (안되니까) 그런 명칭으로 한 것 같아."-유병용, 종합체육관 1대 사범-(최윤규 등, 2016a, p.78)

○ 이 당시 가장 권위있는 대회는 전북종합체육관에 태권도가 자리한 전북 지도관 개관일에 맞춰 개최된 '추기 선수권대회'임

"춘기 선수권대회 등을 지도관 본관에서 기(旗)를 만들어서. 보조받을 데가 없으니까 대회를 만들었지. 무조건 겨루기만 했지. 우승한 사람은 배나 기로 준다던지 해서 끝났지. 경기단체가 없었어. 내가 볼 때는 전주에서 일 년에 서너 번 밖에 안 해. 당시는 5명씩 단체전이야.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안 들었어. 봄, 가을에 한 번 씩. 아마 가을에 정기적으로 했을 거 같아. 10월 20일이 개관일이니까 아마 그때 가장 크게 한 것 같아. 기는 옮겨가지. 3년간 우승하면 영원히 가져가지만."-유병용, 종합체육관 1대 사범-(최윤규 등, 2016a, p.79)

▌ 전국체전

○ 태권도의 경기화 과정에서 정식 종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전국체육대회 종목 채택이 매우 중요함

○ 태권도는 1962년 제43회 대구 전국체전 시범종목과 1963년 제44회 전주 전국체전 정식종목을 거쳐 경기화에 성공함

○ 제43회 대구 전국체전 태권도 종목에 전북팀은 유기대와 오석환, 최영렬, 성광호, 김재화가 고등부에 출전했고 조점선과 최광식, 이호웅, 이문성, 문창균이 일반부에 출전했음

○ 상대팀인 경북팀은 김정웅와 장기용, 박성규, 권일웅, 임의제가 고등부, 박중화

과 박정일, 최말교, 박재춘, 소정섭이 출전함

- 전북팀은 실전 겨루기를 연마했고, 지역에서 크고 작은 대회를 통해 경험이 풍부했던 반면 경북팀은 겨루기를 약속대련으로 수련했기 때문에 양 팀 간의 실력 격차가 컸음

> "1962년 전국체육대회 당시 지도관을 중심으로 실전 겨루기를 활발하게 연마하던 전라북도는 경기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협회조차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한 경상북도는 경기 경험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선수단을 구성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기 경험이 부족한 경상북도 선수들에게 전라북도 선수들은 돌려차기 등 다양한 기술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당시 시합에 출전했던 최말교 관장은 발차기는 주로 옆차기, 돌려차기였지. 그 때 당시에 전라북도 선수 중 한 명이 뒤 돌려차기도 하고 했지, 회전 돌리기라고 했나라고 술회했다."(최윤규 등, 2016a, p.84)

- 대구 전국체전 이듬해 안방에서 개최된 제44회 전주 전국체전에서 전북팀은 태권도 종목에서 4종목 가운데 3종목을 싹쓸이했음
- 구체적으로 결승전에서 고산중이 경희중을 2 대 0으로 승리했고, 고교부에서 전주고가 청주고를 5 대 0으로 압도했음. 대학부에서 전북대가 성균관대를 3대 1로 제압학 우승을 차지했음. 다만 일반부에서 전국 지도관 본관인 한국체육관이 청도관 수원 본관을 이기고 유일하게 다른 지역이 우승을 차지함
- 이후에도 전북팀은 전국체전에서 지속적으로 압도적 실력 차이로 우승을 차지했음

3) 태권도 겨루기 규칙

▌ 첫 태권도 경기 규칙

○ 태권도 경기화 과정에서 승패를 겨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이 경기규칙이 선행되어야 함

> “태권도 원로 강원식 사범은 60년대 처음 경기규칙이 제정될 때 상황을 협회가 구성되면서 경기화 하자, 스포츠화 하자 이렇게 된 것이며, … 태권도를 스포츠화 하기 위해서 겨루기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겨루기를 하다 보니 심사 때 하는 것처럼 시범위주가 아니라 승패를 가려야 하니 경기규칙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최윤규 등, 2016a, p.81)

○ 전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수련했던 약속대련은 승패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겨루기 규칙이 미미했던 반면 전북 지역은 실전 겨루기를 연마하고 크고 작은 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이미 경기규칙이 존재했음

○ 전북 지도관은 자신들이 경기를 치르던 경기규칙을 태권도협회에 제출하였고 협회는 이를 토대로 첫 번째 경기 규칙을 제정했음

> “(경기) 규칙은 우리 전라북도 규칙을 대한체육회에 줬지. … 대한체육회 연구반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가미해 가지고 (규칙을 제정했다). … 모체가 전라북도 규칙이야. … 경기규칙도 간단했어. (내 기억으로) 한 선수당 2분 3회전이었어. 심판은 넷이었고 결론은 주심이었어. 그러고 배심원을 뒀어. 발로 차는 것도 인정을 하고, 타격이 갔다했을 때 (득점) 적용이 되지. 발로차기 몇 점, 주먹으로 가격할 때 몇 점 등 경기규칙이 있어. 근데 이런 규칙 관련해서 대한체육회에는 있을 거야. 저쪽 심판 우리 심판해서 두 명씩 나가고 주심 한 명 있고. 하여튼 그 당시는 그렇게 (경기했어). … (당시 경기방식은) 단체

전이었고, 개인전이 아니야. ‘선봉’, ‘전위’, ‘중견’, ‘후위’, ‘주장’ 이렇게 5명[32]이 선수야. 여기는 급수가 없어. 체급도 없어. 잘못하면 주장이 꼬마 랑도 붙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만들 때는 그런 것은 없었거든. 작전을 잘 짜서 이런 식으로 경기를 나가니까.”-유병용, 종합체육관 1대 사범-(최윤규 등, 2016a, p.83)

○ 최조의 경기 규칙은 다음과 같음

태권도 경기는 8m×8m 장방형 마룻바닥에서 진행되었으며, 주로 1팀에 6명씩 출전하는 단체전 경기가 실력이나 체급에 관계없이 진행되었다. 심판원은 6단 이상 고단자로 구성되는 배심원 2명, 4단 이상 보유자인 주심 1명, 부심 4명 등 7심제였다. 득점은 정확한 가격에 의한 1점제였으며, 12개 사항의 ‘주의’와 4개의 사항의 감점 사항이 있었다. 상대의 발길을 걸어 넘기는 행위는 점수로 인정되진 않았지만 경고나 감점 사항이 아니었으며, 유효한 전략이었지만 부상자가 속출하였으며, 발쓰기가 위축되기도 하였다.(전정우, 2014, p.81)

○ 전북의 태권도 겨루기 규칙의 공식화는 1961년 전주 옛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한일무도대회임

○ 서로 다른 두 종목이 단일 경기를 치루기 위해 10경기 가운데 5경기씩 태권도와 가라테 규칙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함

○ 당시 대회에 출전했던 이승완 전 대한태권도협회장에 따르면 태권도 규칙이 적용된 경기에서 전북 선수가 승리했고, 가라테 규칙이 적용된 경기에선 일본 선수가 이겼음

○ 당시 대회를 보도한 전북일보 기사에 따르면 방구 착용(가라테)과 불착용(태권도)으로 구분하였고, 최종적으로 5 대 5로 무승부를 기록함(최윤규 등, 2016b)

32) 유병용, 종합체육관 1대 사범의 설명에 따르면 출전선수 5명뿐만 아니라 1명의 후보 선수가 있었다. 따라서 당시 대회에 참가하려면 총 6명의 선수가 필요했다.

4) 전북 태권도 명인

▌ 전일섭

- ❍ 조선연무관을 창설한 전상섭의 친동생인 전일섭은 연무관 관번 2번으로 태권도이 입문함. 구기 종목에 관심이 많던 전일섭은 연무관 입관 후 태권도에 심취함
- ❍ 서울에서 태권도를 수련한 전일섭은 군산세관의 치안담당으로 발령을 받아 1947년 5월에 군산 출신 김혁래 사범과 함께 군산에 전북 최초의 태권도장을 개설함
- ❍ 전일섭은 1955년에 전북종합체육관장이던 전북도의회 유수복 의원 초빙으로 전주에 태권도부를 설치하고 지도관 중심의 실전 겨루기를 발전시킴
- ❍ 위험한 태권도 겨루기에서 선수보호를 위한 대나무를 솜에 감싸 두꺼운 천에 넣은 최초의 태권도 호구를 개발함

▌ 유병용

- ❍ 광주에서 사범학교를 다니면 유도를 수련했던 유병용은 전일섭 관장을 만나 전주로 돌아와 태권도를 수련하고 지도함
- ❍ 지도관 사범과 전북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를 오랜 기간 맡아 태권도 행정을 개척함
- ❍ 호구 개발과정에서 전일섭 관장에게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최초의 호구 개발에서도 공이 큼

▌ 이규형

- ❍ 1948년 장수 출신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태권도를 시작했지만 사범이 떠나 스스로 태권도를 수련함. 때문에 승단심사에서 2번 불합격하는 등 어려움을 겪음
- ❍ 군 복무 중 서울 미동초등학교 태권도부가 자신과 같은 아픔으로 해체된다는 소

식을 듣고 아이들을 지도함. 후에 미동초 태권도부는 대한태권도협회 공식 태권도 시범단으로 성장함

-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펼쳐진 태권도 시범을 담당해 태권도의 진수를 전 세계에 알림

▌ 박연희 · 박연환

- 박연희는 1945년 정읍 출신으로 일명 따발총으로 불리는 앞차기 기술로 1963년부터 66년까지 국가대표를 지냄
- 1972년에 일본에 사범으로 건너간 후 이듬해에 미국에 정착함
- 동생 박연환은 1947년 생으로 아프리카 네소트 정부파견 사범을 거쳐 1979년에 미국에서 형 박연희와 함께 뉴욕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함
- 박연희·박연환 형제는 1993년에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가든에서 대규모 태권도대회를 개최해 태권도 붐을 일으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에 기여함

▌ 이상철

- 1948년 김제 출신으로 1970년 대한체육회 최우수 선수에 선정됨
- 1975년 결혼과 동시에 미국으로 건너가 돈을 모아 태권도장을 개설함
- 1979년부터 1988년까지 미국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고, 1988년 미국태권도연맹 사무총장, 1997년부터 7년여 동안 미국 태권도연맹(USTU) 회장을 역임함. 2002년 세계태권도연맹(WT) 부총재를 지냈음

▌ 이승완

- 1940년 익산 출신으로 15살 때 전북종합체육관에 입관했고, 태권도뿐만 아니라 권투와 레슬링 등 각종 격투기 종목을 수련했음

○ 전주고 태권도부 주장을 맡아 전국체전 등 크고 작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음. 특히 1963년에 일본 동경 한일 무도 친선경기에서 한국 태권팀 주장을 대표팀을 이끌었음

○ 권투를 수련했던 이승완은 권투 준비자세를 변형한 태권도 준비자세를 개발함. 공격과 수비에 유리하도록 가슴 부위에 양 손을 위 아래로 위치시킨 준비자세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

○ 지도관 중앙본관 관장, 대한태권도협회장, 국기원장을 역임했음

▌ 유기대, 최영렬

○ 유기대는 1945년 전주 출신으로 1961년 전주고 1학년 태권도를 시작함.

○ 플라이급 선수인 유기대는 작은 키와 왜소한 체구를 극복하기 위해 변형 발기술을 개발함

○ 1962년 제43회과 1963년 제44회, 1965년 제46회, 1966년 제47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음. 1966년 국가대표로 한일 무도 친선경기에서도 우승을 차지함

○ 최영렬은 1945년 김제 출신으로 전주고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 유기대의 영향으로 태권도에 입문함

○ 타고난 체격으로 힘이 엄청난 장사였음, 1963년 동경에서 열리는 한일전을 다녀왔고. 1966년부터 70년까지 5년 동안 대통령배 전승의 화려한 기록을 남김

○ 1983년 최초의 태권도학과인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개설을 주도했고 태권도학과장과 체육대학장을 역임함

4장

태권도원과 전라북도 태권도자원 연계전략

Jeonbuk Institute

제1절 자원연계 방향
제2절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구성요소 설정

제4장 태권도원과 전라북도 태권도자원 연계전략

제1절 자원연계 방향

1. 연계 기조

❍ 국립태권도원은 국토 내륙의 중앙부인 전라북도 무주군에 소재하고 있어 광역교통망에 기반, 전국 각지에서 3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지리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태권도원이라는 물리적 환경 외 상호 연계된 콘텐츠의 부재에 따라 태권도의 원류지로써 전북도의 대내·외적 브랜드이미지 제고가 부족하고. 전라북도 및 전국 대상 사회·문화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비한 실정임

- 태권도자원 및 콘텐츠 중심의 거점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현재의 태권도원은 공간적으로 단절된 형태로 인해 통합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파생되는 파급효과가 사회·문화적 측면 또는 경제적 측면에서 미비함

❍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의 측면에서 태권도원 거점 및 허브체계를 구축하고 태권도 역사자원과 유사 또는 관계된 자원의 상호보완적 연결을 추진하여 전라북도 태권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 태권도원의 거점하 및 개별적 특성과 발전방향을 갖는 시·군을 특정하고 스포크로 발전시켜 태권도원과 전라북도 태권도 역사자원 연계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태권도 브랜드이미지 구축을 위해 태권도원의 거점화를 바탕으로 도내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의 측면에서태권도원과 전라북도 태권도자원 연계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제시함

▌ 공간으로써의 태권도원 장소성[33] 강화 및 거점형 활용방안 모색

○ 태권도원이 태권도라는 자원을 활용한 전국적 거점지역임에도 공간적으로 단절된 별개의 장소라는 인식이 높음에 따라 전라북도 내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관련 자원 또는 유사 자원과의 선형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태권도원의 장소성을 강화하고자 함

○ 태권도원이라는 장소의 매력 요인을 강화함으로써 구체적이고 해석적이며 미학적 성격을 부여하고 대중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선택·집중을 통한 거점형 활용방안을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개별 공간으로 인식되는 전라북도 내 타 시·군과의 연계 활성화를 추진하여 장소를 상품화하고자 함

▌ 장소마케팅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전라북도 태권도 브랜드전략 수립

○ 장소는 물리적 공간 환경 외 지역문화, 활동 및 사람과 환경 간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가치·정서 및 상징과 의미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고유한 총체적 실체(이무용, 2006)임에 따라 전라북도의 장소마케팅 강화를 통해 태권도 활성화 및 '태권도의 원류지 전라북도'의 브랜드전략을 수립함

○ 태권도원이 소재한 무주군 외 전라북도 내 타 시·군에 산재한 태권도 역사자원에 동일한 장소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선형적이고 공간적으로 연결하는 테마의 연계 및 통합에 따라 전라북도 태권도의 브랜드 강화전략을 구축함

▌ 전라북도 내 동질적 또는 유사자원 간 연계 활용사업 발굴 및 육성 추진

○ 역사적으로 전라북도 태권도는 그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에도 도내 산재한 다양한 동질적 또는 유사한 특성을 지닌 자원 간 연계 활성화 방안이 미흡함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인지도와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임

---

33) 장소는 공간과 차별화된 의미로 사용되며, '공간'이 추상적, 물리적, 기능적 성격에 집중한 반면, '장소'의 경우 복합적 개념으로 공간이 지닌 물리적 요소 외 특정한 활동, 상징성을 포함하는 사회문화적 성격이 강한 개념으로(백선혜, 2005; 한범수 외, 2008) 물리적·환경적 요소, 인적·문화적 요소 및 상대적 요소, 정서·상징적 요소 등이 포함된다(한범수 외, 2008).

○ 국립태권도원을 허브(Hub)로 설정하여 거점으로 구축하고 도내 시·군에 분포한 태권도 역사자원을 연계하여 태권도문화에서 전라북도의 역할과 기능 및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을 발굴하고자 함

▌ 실효성과 지속성을 전제한 사업의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

○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의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단기간 성과 도출이 가능한 사업 외에도 사업의 체계화를 바탕으로 유사사업 추진을 배제하고 사업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연계 컨셉[34)]

○ 본 연구는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태권도 브랜드이미지를 접목함으로써 지역적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강화 전략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음. 특히, '국립태권도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장소성을 강화하고 도내 산재한 다양한 태권도 역사자원과의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전라북도를 태권도의 원류지로 브랜드화하고자 함

1)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개발방식 개념

○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방식은 지역 또는 공간이 보유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드(node)' 중심에 '허브(Hub)'를 구축하고 노드와 허브 간 연결을 통해 '스포크(Spoke)'를 형성·발전시키는 방법을 의미하며, 기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유리한 방식으로 광역적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유도함(한국문화관광연구원 외, 2010)

○ 권역 간 또는 권역 내 네트워크 방식의 공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에 따라 적합하거나 유리한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도록 하며 각 권역의 특화된 매력요인을

34) 본 내용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국토연구원·건일엔지니어링(2010),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 연구」, 한국관광공사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강화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지역 간 차별화 및 다양성을 유도하고 외부적으로 지역 전반의 대·내외적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용이한 접근방식임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 도입 전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 도입 후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국토연구원·건일엔지니어링(2010),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 기반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 연구」, 한국관광공사

[그림 4-1]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 도입 전·후 비교

2)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개발방식 구성요소

▌ 노드(node)

○ 특정 목표 수립계획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공통된 특성의 잠재력을 보유한 개별적인 지역을 각각의 노드로 설정함

○ 각각의 노드는 특색 있는 자원 보유, 교통의 요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며 설정된 노드 간에는 연계나 협력체계의 구축 없이 기존과 같이 독립된 형태로 기능 수행을 지속함

▌ 허브(hub)

○ 지리적 환경, 시설, 제도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며 노드를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중심노드를 허브로 설정함

○ 허브는 노드의 연결 효율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노드 간 이동과 소통 및 외부로부터의 이동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노드 전반의 발전을 견인함

▌ 스포크(spoke)

○ 노드가 허브와의 연결을 통해 발전된 개념으로 허브와 연결된 모든 노드와 노드가 갖는 연결망을 포함하는 개념임

○ 스포크는 각각의 독립된 지역으로서 개별적 특성과 발전방향을 갖되, 광역적으로는 허브와의 상생적 관계 하에 허브를 연계·지원함으로써 전체 권역의 발전을 도모함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국토연구원·건일엔지니어링(2010),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 연구」, 한국관광공사

[그림 4-2]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 구성요소

3)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개발방식 기대효과

▌ 중점지역 강화와 주변지역의 발전도모

○ 기존 중점지역 집중개발방식에서 벗으나 중점지역은 현재의 강점을 더욱 강화시키고, 주변지역은 잠재력을 개발하여 발전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전 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 허브와 스포크는 바퀴살의 큰 테두리 안에서 상생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허브와 각각의 스포크에서 발생되는 파급효과를 공유함에 따라 전반의 수평적 발전을 유도함

▌ 산재자원의 활성화와 사업예산의 효율적 활용

○ 체계적인 관리 없이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던 기존 자원을 단일목표를 갖는 스포크개발의 기본으로 활용함으로써 특정한 발전방향과 전략을 갖는 정체성 있는 자원으로 활성화함

○ 허브를 중심으로 하는 전 지역의 연결망을 통하여 지역 간 효율적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기능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효율적 지역발전체계를 구축함

제2절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구성요소 설정

1.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전라북도 태권도 노드 자원(Node) 발굴

1) 전주시

▌ 고사동 전북종합체육관, 융합을 통한 겨루기 기술의 성장

- ❍ 체육인들의 성금으로 마련된 전북종합체육관은 1955년 4월 15일 준공, 7월 20일 개관하였으며 당시 유수복 전북도의원이 관장으로 취임함(전북체육 100년사, 2002)
- ❍ 군산에서 전북 지역에 태권도를 전파하던 전일섭은 유수복 관장의 초청으로 전주종합체육관에 태권도부를 창설하고 거주지를 전주로 옮겼으며, 이를 계기로 전주에 태권도가 활발히 전파됨
- ❍ 겨루기 태권도의 본산인 전주시에서 태권도가 최초로 시작된 장소임을 스토리텔링하고 당시의 모습을 복원한 건물 조성으로 '겨루기 태권도의 시작'을 테마로 한 명소화가 가능함
- ❍ 전북종합체육관에서 태권도는 복싱과 레슬링 등 다른 격투기 종목과 교류를 통해 컨버전스(Convergence)를 이룩하여 기술적 성장을 이룩함. 당시 태권도와 다른 종목들은 우열을 겨루기 위해 수시로 대결을 벌임
- ❍ 이승완 전 대태협회장은 권투의 준비 자세를 변형해서 왼팔을 얼굴 부근으로 올려 얼굴을 보호하고 오른팔을 어리 부근으로 내려 발차기를 막어할 수 있는 준비자세를 고안함. 이 준비자세는 현재까지 소용되고 있음
- ❍ 현재 태권도 겨루기에서 주먹기술은 정권을 이용한 주먹지르기만 인정되기 때문에 미미한 존재임. 하지만 당시 태권도에서 주먹기술 또한 중요한 기술이었음. 이러한 주먹기술 역시 권투와 교류를 통해 발전됨
- ❍ 당시 태권도 겨루기는 현재의 이종 격투기처럼 여러 종목이 혼재된 형태임. 현재 태권도 겨루기 규칙은 상대를 넘어트리지 않음. 하지만 당시 태권도는 상대를 넘

어뜨리는 메치기 기술이 존재했음. 이러한 기술은 레슬링과 교류를 통해 발달하였음

- 더불어 전북종합체육관은 체육인들의 성금을 모아 마련된 복합수련관으로 전라북도 체육사에서 매우 뜻깊은 공간임
- 연무관 관번 2번인 전일섭은 전북 최초로 군산에 태권도를 보급한데 이어 전북체육관으로 옮겨 전주에 태권도를 보급함. 다른 지역의 약속대련과 다르게 전북지역에 실전 겨루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현대 태권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함. 전일섭 관장과 함께 최초의 태권도 선수 보호장비인 호구를 개발함
- 사범학교 출신으로 당시 엘리트였던 유병용 사범은 전일섭 관장을 도와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행정 도맡아 운영함으로써 태권도 발전을 견인함. 후에 전일섭 관장의 호구 개발을 도움
- 전북종합체육관 초기인 1955년 태권도에 입문한 이승완은 다른 종목과 교류를 통해 각종 기술을 개발하는 등 실전 겨루기를 강화시킴. 한일 무도 친선대회에서 주장을 맡는 등 후배 양성에 기여한바가 큼

▌ 척성동체육관, 태권도 보급 및 겨루기 대회의 시작

- 여러 종목과 함께 공간을 공유하여 체계적 수련이 어려워진 태권도 지도부는 전북종합체육관에서 개관한 약 2년 후인 1957년 독립하여 첫 태권도 전용체육관 개관 논의가 이루어짐
- 당시 척성동(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2길 35)에 약 50평 규모의 전북 첫 태권도 전용 체육관을 개관함
- 현재 본 건물은 사라졌으나 당시 모습의 재현을 통해 고사동 전북종합체육관, 경원도체육관과 인접해 있어 전북 최초의 태권도 전용 체육관으로써의 명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태권도 전용도장인 척석동체육관에서 현대와 비슷한 태권도 대회가 시작됨. 전북체육관이 경우 여러 종목이 시간대를 나눠 수련하기 때문에 수련에 한계가 존

재했음. 전용도장의 마련으로 태권도 겨루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

- 척성동체육관 시절 전북 태권도는 도내 시군 지역에 태권도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함
- 전북종합체육관 시절부터 태권도를 시작한 수련자들이 유단자가 됨으로써 이들이 사범으로 도내 시군 전역으로 진출함
- 태권도의 전북 전역 보급은 태권도 대회의 활성화로 이어짐. 각 지역에서 태권도를 수련한 이들은 서로의 실력을 겨루기 위해 시군대항 겨루기 대회에 참석함
- 시군을 대표한 선수들은 경기를 마친 후 집단 난투극을 벌일 정도로 치열하게 경쟁했음

▌ 경원동체육관, 전북 태권도의 전성기

- 척성동체육관에서 수련하는 태권도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당시 주 수련층(고등학생)이 밀집해 있는 경원동으로 체육관을 이전하게 됨
- 경원동 체육관과 함께 전일섭관장의 사저도 신축되었으며, 현재 경원동체육관은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으나 전일섭관장의 사저는 당시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임
- 전북 태권도의 전성기 및 태권도 겨루기가 태동하던 시기의 관련 건물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 태권도 겨루기를 통한 경기화를 이룬 지도관은 서울이 아닌 전북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음. 따라서 태권도 겨루기의 시초는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 지역임. 그 중심에 전북 태권도가 본격적으로 발전된 경원동체육관이 있음
- 경원동체육관 시절, 하루 5회 강습이 이루어졌고, 수련생이 600명을 넘고 을 정도로 태권도가 활성화됨
- 이 시절 실전 겨루기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됨. 태권도 수련 가운데 20~30여

분을 겨루기에 할애하여 집중적으로 실력을 향상시켰음. 더불어 겨루기를 승급과 승단심사에서 합격, 불합격의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설정하여 중요성을 강조함

- 수련 방식은 연령과 체급, 실력과 상관없이 모든 수련생들과 연속적으로 겨루기를 시행하였음. 이러한 훈련방식은 초기 태권도대회의 단체 선발전과 연결되어 있음
- 시군대항 겨루기 대회가 활성화되어 크고 작은 대회가 연속적으로 개최되었음. 이 가운데 전북종합체육관에 태권도가 처음 자리한 지도관 개관일에 맞춰 개최된 '추기 선수권대회'가 가장 권위 있는 대회였음
- 태권도의 인기를 통한 수련생 증가와 겨루기에 대한 집중적 훈련으로 우수 선수들이 많이 배출됐었음
- 도내 시군대항 겨루기대회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선수들은 전국체육대회에서 태권도가 종목으로 채택된 후 압도적 실력으로 두각을 나타냄
- 태권도의 경기화를 위해서 승패를 판단할 수 있는 경기 규칙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 약속대련이 유행하던 다른 지역은 경기규칙이 없었지만 실전 겨루기 위주의 전북지역은 이미 경기규칙이 존재함
- 태권도가 전국체전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전북의 경기규칙을 차용하여 공식 규칙을 제정함
- 박연희와 박연환 형제는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두각을 나타낸 후 미국으로 건너가 태권도장을 운영함.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대규모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여 붐을 일으킴
- 전주고 동기인 유기대와 최영렬은 비슷한 시기에 태권도에 입문하여 탁월한 성적을 거둠. 플라이급이던 유기대는 자신보다 큰 선수를 상대하기 위해 변형된 각종 발차기 기술을 개발함. 반대로 체구 컸던 최영렬은 타고난 힘으로 상대를 압도했음. 후에 최초의 태권도학과를 개설하는 등 학술적 발전에도 기여함
- 대한체육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던 이상철은 미국으로 건너가 국가대표 감독

과 미국태권도연맹 사무총장, 회장, 세계태권도연맹 부총재를 역임함

▌ 한일무도 친선경기, 최초의 태권도 국제대회

❍ 지도관 1대 관장을 지낸 윤쾌병은 일본 가라데와 대학수박도(당시 태권도)의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며 한일무도 친선경기를 개최하고자 하였음

❍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실전겨루기가 친선경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한 주최 측은 당시 실전 겨루기를 수력하는 지역인 전라북도에서 첫 한일무도 친선경기를 개최함

- 태권도가 태동하던 시절 전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약속대련 위주의 겨루기를 연마했던 반면 전북 지역은 실제 상대방을 가격하는 실전 겨루기를 수련하였음
- 1961년 일본 가라데 대표팀 10명이 전주를 방문하여 5월 13일 첫 한일무도 친선경기가 개최됨

❍ 첫 한일무도 친선경기는 대한수박도회(지도관, 무덕관) 주관으로 공수도지도관 전북본관 주최로 전주공설운동장(농구장)에서 개최되었음

- 1961년 당시 전주공설운동장은 현재 중노송동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전북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 일대에 위치함

❍ 제1회 한일무도 친선경기가 옛 전주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었음. 이 대회는 공식적으로 태권도 종목으로 치러진 첫 국제대회임

❍ 우리나라 태권도와 일본 가라데가 겨루기를 총 10번 겨뤘고, 서로 다른 종목을 공정하게 치루기 위해 각 종목의 규칙에 따라 각각 5경기를 개최했음

❍ 이 대회는 태권도와 가라데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공식대회의 의의를 지님

❍ 태권도와 가라데의 유사성 논란에서 겨루기의 성격이 완연히 다름을 입증하는 중요한 대회인 역사적 의미를 간직하고 있음

❍ 이 대회에서 일본팀이 가져온 가라데 방구가 태권도 첫 호구 개발에 단초를 제공함

○ 실전 겨루기의 위험성으로 선수가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던 상황에서 가라테 방구는 아이디어를 제공함

○ 전일섭 관장과 유병용 사범은 검도 호구와 유사하여 탄력이 부족한 방구의 단점을 보완하여 탄성이 높은 대나무를 이용하여 천으로 호구를 처음으로 개발함

2) 군산시

▌ 일제강점기 군산세관

○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전북 지역에 태권도가 유입된 이유는 연무관 관번 2번인 전일섭이 군산세관의 경비 책임자로 부임하며 태권도장을 설치했기 때문임(최윤규, 김동영, 김해인, 2016 a)

- 전라북도는 1947년 연무관(후에 지도관으로 명칭을 개정함) 지방본관이 개관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이르게 태권도가 전파되었음

○ 군산세관으로 발령을 받은 전일섭은 군산출신의 김혁래와 함께 1947년 5월 군산에 연무관 지관을 설치하고 전북에 최초로 태권도를 전파한 전일섭과 김혁래의 공로에 대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전라북도 태권도 최초 전파계기, 역사적 인물에 관한 스토리텔링를 통해 군산의 노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군산종합체육관, 최초의 전북 태권도장 및 실전 겨루기의 시작

○ 전일섭 관장과 김혁래 사범은 현재 전북 군산시 대학로 12(영화동 9-6)에 전북 최초의 태권도장을 개관했음

- 당시 태권도장은 태권도 전용 체육관이 아닌 역도와 권투, 유도를 같은 공간에서 수련하는 종합체육관으로 이곳의 명칭은 '군산종합체육관'이었음

○ 전일섭이 근무했던 옛 군산세관(산시 해망로 244-7)과의 거리는 약 500m로 도보 8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해 연계자원 발굴이 가능함

○ 태권도 겨루기를 통한 경기화를 이룬 지도관은 서울이 아닌 전북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음. 따라서 태권도 겨루기의 시초는 전북 지역에 처음으로 태권도가 전파된 군산지역임

○ 전일섭 관장이 전주로 떠난 후에도 김혁래 사범은 홀로 남아 군산지역의 태권도를 지켜 나감

○ 태권도 실전 겨루기가 시작된 군산종합체육관은 전주 체육관들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룸. 군산과 전주 경기에서 패하면 집에 가지 못할 정도로 양 지역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함

○ 미군 부대가 위치한 군산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미군에게 태권도가 유입된 지역도 군산지역임

○ 김혁래 사범이 미국에게 태권도를 가르쳤고,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태권도를 전파하는 효과를 거두었음

3) 익산시

▌ 이리역 중심의 무덕관

○ 해방 직후 서울 용산역을 중심으로 철도국 운수부에서 시작된 무덕관은 각 지방의 기차역 창고에 태권도장을 개관함(강원식·이경명, 2002; 최윤규 외, 2016 a)

○ 전북 지역의 다른 지역에서 지도관이 주를 이뤘던 반면 일제강점기부터 기차역이 발달한 익산시에는 1955년 무덕관이 개관함

○ 전북도내로 진입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익산역(구 이리역)에 태권도 관련 역사자원을 콘텐츠화하여 전라북도 태권도 역사자원에 대한 홍보가 가능함

○ 전북 태권도의 주를 이뤘던 지도관은 익산 지역에 이미 무덕관과 창무관이 자리잡고 있어 진출이 늦었음

○ 전북에서 무덕관은 익산역 목욕탕 빈 공간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철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가르치다가 1958년부터 일반인에게도 개방했음

- 지도관이 겨루기 중심이었던데 반해 무덕관은 품새와 자기방어식 대련을 많이 수련했음
- 창무관을 학교를 중심으로 전파되었음. 해병대를 제대한 개선출신 설명희 사범이 1955년 익산 동산초에서 창무관을 시작했음. 이후 학교를 중심으로 퍼져 나갔음

2. 허브(Hub) 자원으로써의 태권도원

1) 태권도원

- 정부는 태권도를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2014년 무주군 설천면에 태권도원을 개원하고 수련, 체험, 학습 등 태권도 관련 콘텐츠를 제공함
- 태권도원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를 통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30분정도 소요하여 접근 가능하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와 1시간 30분 내외로 이동 가능하여 산재된 노드들을 연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태권도원의 규모는 2,314㎡으로 태권도 체험공간, 태권도 수련공간, 태권도 근본정신 계승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권도 종주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허브로써의 시설요건을 만족함
- 전라북도 내 위치한 태권도원 방문객은 2014년 개관이래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336,554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노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정부는 태권도 대표관광지로 태권도원을 명소화하고, 2020년까지 태권도원 상징지구를 조성하여 세계 태권도 문화교류의 허브로 조성하고 해외 태권도인의 방문 유치를 확대하고자 해 연계의 중심 통로가 될 수 있는 전제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태권도원의 운영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에서 태권도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

업,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태권도 보존·보급·홍보에 관한 사업,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실행하는 등 태권도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노드 전반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장

태권도원과 전라북도 태권도자원 연계방안

Jeonbuk Institute

제1절 자원의 구축방안
제2절 자원의 확장방안

제5장 태권도원과 전라북도 태권도자원 연계방안

[그림 5-1] 전라북도 태권도 역사자원 분포

▌ 공간의 설정

○ 태권도원과 도내 태권도 역사자원 간의 상호보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설정을 유도하여 파급효과를 확장할 수 있는 연계방안을 구상함

○ 전북 도내 태권도 역사자원 발굴 및 구축을 통해 태권도원 방문객을 도내로 유입하고 태권도원의 콘텐츠를 확장시킴으로써 전라북도 태권도 자원을 확장하고, 태권도원과 도내 태권도 역사자원의 상생적 발전을 유도함

▌ 태권도원, 핵심지역인 허브 설정

○ 도내 태권도 역사자원 상징성 및 장소성 강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태권도원을 허브로 설정하고 태권도원 방문객의 도내 역사자원 방문 유도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도하고 도내 태권도 역사자원 권역을 이끌어 가는 구조를 확립하고자 함

▌ 허브와 연계된 태권도역사자원 잠재지역의 스포크 설정

○ 지역의 태권도 역사자원 분포 정도를 분석하여 도내 태권도 역사자원으로서 상징성을 보유한 노드를 확충하고, 확충된 노드를 허브 중심으로 연결함으로써 '태권도'라는 공통의 콘텐츠를 갖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스포크를 설정함

제1절 자원의 구축방안

1. 전주시

1) 지도관·전수관 건립

▌ 컨셉 : 태권도 겨루기의 본산

○ 현대 태권도는 겨루기를 통해 경기화를 이뤘고 이를 바탕으로 5대륙 208개 국가가 세계태권도연맹(WT)에 가입하는 등 전 세계적 스포츠로 성장하였음

○ 현재와 같은 태권도 겨루기는 지도관에서 시작되었음. 지도관은 서울에서 연무관으로 시작되었지만, 명칭을 지도관으로 변경했고 전주에서 발달되었음. 따라서 전주 지도관이 대한민국이 지도관을 대표함

▌ 전략 : 지도관·전수관 건립을 통한 전시 공간 마련

○ 전북 지역은 태권도 겨루기의 원형인 규칙과 기술, 보호장비가 시작된 지역임

○ 실적 겨루기를 주로 수련했던 전북은 겨루기의 승패를 판단하기 위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규칙을 제정하였음

○ 전북 태권도인들은 겨루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득점에 유리한 특정 기술을 발달시켰음

○ 상대방을 실재 가격하는 겨루기 종목은 필연적으로 부상 및 사망의 위험을 안고 있음. 전북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태권도 최초의 호구를 개발하는 등 선수보호 콘텐츠를 간직하고 있음

○ 전북 지도관 콘텐츠가 현재 태권도 겨루기의 원형인 상황에서 태권도 원로들이 사망으로 사라져 가는 태권도 콘텐츠를 전수할 수 있는 지도관 전수관이 필요함

○ 지도관 전수관의 개념적 범위를 전주로 한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위상을 높여야 함

○ 더불어 최초의 호구, 지도관 명인들의 도복, 대회 우승 트로피 및 우승기, 관련 사진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 공간 마련이 필요함

▌ 사업내용

○ 전라북도 태권도 아카이브구축

- 전라북도 태권도 겨루기가 시작되고 활성화 당시 사용된 교본, 관련 서적 등 태권도 관련 자료 집대성
- 전라북도 겨루기 태권도 유·무형자산을 고증하고 이를 복원 및 디지털 영상으로 제작

○ VR · AR 체험관 설치

- ICT를 활용하여 태권도 진수를 오감으로 만끽할 수 있는 VR · AR 체험공간 마련
-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태권도 명인에 이르는 과정을 제공

2) 전북종합체육관, 척성동체육관 복원

▌ 컨셉 : 체육인들의 성금으로 건립된 체육관, 전북 최초의 태권도 전용 체육관

○ 체육인들의 성금으로 마련된 1955년 4월 15일 전북종합체육관이 준공되어 태권도부가 전주 최초로 창설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전주의 태권도가 활발히 전파됨

○ 체계적 수련을 위해 1957년 전북종합체육관에서 독립하여 첫 태권도 전용체육관인 척성동 체육관을 건립함

▌ 전략 : 전북 최초의 태권도 전용체육관 복원을 통한 태권도의 위상 강화

○ 전북종합체육관은 태권도 실전 겨루기를 본격적으로 수련한 공간으로 현대 태권도 겨루기의 초석을 둔 거점임

○ 척성동체육관은 전북에서 처음으로 태권도만을 수련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한 뜻깊은 장소임

○ 현재 본 건물은 사라졌으나 고사동 전북종합체육관과 경원도체육관이 인접해 있어 당시 모습의 재현을 통해 태권도 관련 명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내용

○ 체육인들의 성금으로 건립된 체육관된 전북종합체육관에 관한 내용을 스토링텔링해 당시 전북도민의 태권도 배움에 대한 열의 전달 공간 마련

○ 당시 교육 모습을 고증하여 훈련모습을 재현한 전시물 설치

○ 옛 전북 태권도 방식의 겨루기 대련 공연 실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당시 성행하던 기술을 중심으로 옛 전북 겨루기 태권도 경기를 복원하여 재현 공연 실시
- 방문객들이 옛 전북 태권도 방식의 대련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프로그램 운영

3) 경원동체육관 및 전일섭 관장 사저 복원

▌ 컨셉 : 전북 태권도의 전성기 및 겨루기 태권도의 세계화

○ 경원동체육관은 당시 전북지역에서 최고 훈련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여 각종대회에서 우승하며 전북 태권도 황금기를 이룩한 공간임

○ 경원동 체육관과 함께 전일섭관장의 사저도 신축되었으며, 전북 태권도의 전성기 및 태권도 겨루기가 태동하던 시기의 관련 건물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로 역사적 가치를 지님

○ 옛 전주공설운동장은 태권도가 한국인들만의 스포츠가 아닌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임을 시험한 최초의 장소임

▌ 전략 : 경원동 체육관 복원을 통한 태권도 속의 전라북도 상징성 강화

○ 경원동체육관 옆 전일섭 관장 거주지가 남아 있어 이곳을 세계 태권도인들의 순

례지로 조성할 수 있음

❍ 더불어 이와 연계하여 옛 전주공설운동장에 대한 안내판 혹은 기념비를 세워 태권도가 한국인들만의 스포츠가 아닌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임을 시험한 최초의 장소임을 부각, 태권도 세계화 속에서의 전라북도의 기여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 첫 한일무도 친선경기장 및 인물을 재현한 설치물 전시

- 설치물 전시를 통하여 흥미성을 유발하고, 정보를 전달하여 태권도 세계화 속에서 전라북도 겨루기 태권도의 역할 강조

❍ 대나무 탄도를 활용한 옛 호구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옛 호구 만들기 방식을 집대성한 후 아이들 및 일반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체험프로그램으로 방식을 변경한 후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

2. 군산시

1) 전북 첫 태권도장 복원

▌ 컨셉 : 태권도 겨루기의 시작

○ 군산은 1947년 전일섭과 김혁래가 태권도 연무관(지도관) 전북지부를 개설한 지역임

○ 당시 태권도는 서울에서 막 시작된 선진 스포츠로 군산을 다른 지역에 비해 이른 시기에 태권도가 유입됨

▌ 전략 : 전북 첫 태권도장 복원을 통한 역사적 가치 확립

○ 전북에서 처음으로 태권도가 유입된 군산종합체육관 복원으로 태권도 겨루기의 시작점이 전북지역임에 대한 역사적 가치 확립이 필요함

○ 태권도장을 복원하고 전일섭과 김혁래의 생활상을 재현함으로써 태권도인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매력적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군산종합체육관은 태권도 전용 도장이 아닌 역도와 권투, 유도 종목이 함께 수련했던 공간으로 태권도가 다른 종목들과의 경쟁을 어떻게 극복하고 발달하였는지 증명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태권도의 우수성을 전시하고자 함

▌ 사업내용

○ 태권도 공헌자 예우 공간 마련

- 전일섭과 김혁래 관장에 대한 고증을 통해 태권도 공헌자 예우 공간 마련

○ 경기화 초기 전라북도 태권도 연보 및 조형물 전시

3. 익산시

1) 익산역 내 무술 역사 재현 공간 구축

▌ 컨셉 : 대한민국 무술 집적화

❍ 철도국 중심으로 태권도를 수련하던 무덕관은 기차역이 발달된 익산시 이리역을 통해 전라북도에 유입됨. 무덕관은 전문 스포츠인이 아닌 직장인들의 심신수련을 특징으로 무술의 생활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가치를 지님

❍ 고구려와 신라, 백제가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기, 백제는 신라의 청소년 무술 조직인 화랑과 유사한 싸울아비가 존재하는 등 대한민국의 무술 역사에서 중요한 맥을 잇고 있음

- 과거 삼국시대 익산은 백제의 거점으로 후기 익산천도설인 존재함

▌ 전략 : 태권도 자원에서 확장된 무술의 생활화 재현

❍ 전통적으로 자기 부족을 지키기 위해 무술을 수련했던 마샬 아트의 정신을 바탕으로 무술의 생활화를 재현이 필요함

❍ 익산역 무덕관의 당시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심신을 단련했던 모습을 구현할 수 있음

❍ 역사적 범위를 무덕관에서 벗어나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 일제 강점기로 이어지는 무술의 역사를 개관하는 전시 공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태권도가 근대에 만들어진 무술이 아닌 역사적 계승을 통해 결실을 맺은 유구한 역사의 무술임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내용

❍ 옛 전북 태권도 관련 유물 및 자료 집대성

- 송무관, 무덕관, 창무관, 연무관, 청도관 등 5대 기관의 겨루기 태권도 방식 및 태권도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전시물 구성

※ 이규형 사범 스토리 : 장수에서 처음 태권도를 수련한 이규형 사범은 군 복무 중 서울 마동초등학교 태권도부가 해체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아이들을 지도함. 이후 태권도 부는 세계 최고의 태권도 시범단으로 발돋움하였으며, 이규형사범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 개막식 태권도 시범 감독을 역임하는 등 최고의 태권도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음

❍ 전라북도의 무술자원 집대성

- 싸울아비 등 전라북도에 독창적으로 존재하던 무술자원을 조사 수집하여 스토링텔링하고 전시물을 구성하여 흥미성 유발

[표 5-1] 자원(하드웨어) 구축 방안

지역	자원	컨셉	전략
전주시	지도관·전수관 건립	• 태권도 겨루기 본산	• 지도관·전수관 건립을 통한 전시 공간 마련
	전북종합체육관, 척성동 체육관 복원	• 체육인들의 성금으로 건립된 체육관, 전북 최초의 태권도 전용 체육관	• 전북 최초의 태권도 전용체육관 복원을 통한 태권도의 위상 강화
	경원동체육관 및 전일섭 관장 사저 복원	• 전북 태권도의 전성기 및 겨루기 태권도의 세계화	• 경원동 체육관 복원을 통한 태권도 속의 전라북도 상징성 강화
군산시	전북 첫 태권도장 복원	• 태권도 겨루기의 시작	• 전북 첫 태권도장 복원을 통한 역사적 가치 확립
익산시	익산역 내 무술 역사 재현 공간 구축	• 대한민국 무술 집적화	• 태권도 자원에서 확장된 무술의 생활화 재현

제2절 자원의 확장방안

1. 전북 관광브랜드 상설공연 연계 익스트림 태권도공연 제작

▌ 필요성 및 목적

❍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의 경우, 공연 콘텐츠의 다변화를 위해 2016년 성춘향 공연에서 2017 떳다 심청, 2018년 홍도 등의 공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상설운영하고 있음

❍ 젊은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및 한옥마을 콘텐츠 다양화 등 긍정적 측면을 보이고 있으나 작품의 흥행성 부족 등으로 인해 관람객모객이 저조한 측면(2017년, 117,807명)을 보이고 있음

❍ 전라북도는 전북도내의 특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태권도원을 방문한 특수목적방문객을 전북도내로 유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있으나 특수목적방문객 유인을 위한 콘텐츠 발굴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임

❍ 전 세계적으로 익스트림 태권도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더불어 태권도, 우슈 등 여러 무술의 발차기 및 비보잉 요소들을 결합한 마샬아츠 트릭킹(Martial arts Tricking)이 인기를 얻고 있음

- 마샬아츠 트릭킹(Martial arts Tricking) : 태권도, 우슈, 카포에라 등 무술의 발차기, 체조 공중회전 및 비틀기, 비보잉 요소를 결합하여 화려하고 다양한 기술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의 액션 스포츠

- 선진국에서는 이미 새로운 스포츠의 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 태권도원의 특수목적방문객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태권도 콘텐츠 관광 및 익스트림 태권도 상설공연 관람을 유도, 주변 자원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제공하여 전주시 관광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위　　치 :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장, 한옥자원 등

❍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전라북도,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전주시 등

▌ 사업내용

❍ 전북 문화관광브랜드 공연 연계, 익스트림 태권도 상설공연 추진

- 전북 태권도인(비전대학교 태권도학과 등 지역 인적자원 활용)을 주축으로 익스트림 태권도 공연 결성
- 트릭킹 중심의 익스트림 태권도와 스토리를 연계한 익스트림 태권도 공연콘텐츠를 개발, 새만금 아리울 예술창고 등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장에서 시범공연 추진
- 시범공연 후 콘텐츠를 개선한 뒤 상설 공연으로 전환 추진

▌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관련사업(시책) 현황

❍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 사업목적 : 지역의 특성화된 공연예술제(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를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육성과 국민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전통 공연예술 활성화 및 해외 전략적 진출 도모
- 사 업 비 : 24,707백만원
- 사업규모 : 지역대표 공연 예술 활동 및 전통공연 예술 활동 80~100건 내외 지원
- 사업내용 : 지역대표공연 예술제지원, 지역명소활용공연지원,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참가 및 해외 진출 지원, 세계무형문화유산활용공연사업, 문화 공간 활용 전통공연사업(구. 전통문화 공간 활용 공연사업),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전통 공연 예술 활동 지원, 공연 예술 전략적 해외진출지원
- 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광역시도,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명동·정동극장,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국악방송, (재)전북문화관광재단, 예술단체 및 예술가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1항, 동법 제18조

❍ 태권도진흥

- 사업목적 :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및 태권도를 통한 한국문화 해외 보급
- 사 업 비 : 17,386백만원
- 사업규모 : 태권도 세계화, 태권도 교육·연구, 태권도 프리미엄산업 생태계 창출
- 사업내용 : 온라인 플랫폼 조성 및 콘텐츠 구축, 해외태권도한마당, 세계태권도 유·청소년단 캠프, 태권도 관람형 산업육성
- 시행주체 : 국기원,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협회 등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 전북 SIT 브랜드 상품 마케팅

- 사업목적 : 태권도원의 관광브랜드화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태권도, 전통공연, 세계유산 등 특화자원 세분화 마케팅 및 스포츠 등 특수목적관광 상품홍보마케팅 등

❍ 전북관광 브랜드 상설공연 운영

- 사업목적 : 도의 대표적인 상설공연 제작·운영으로 관광 활성화 도모
- 사 업 비 : 1,200백만원(국비[기금] 600, 도비 600)
- 사업규모 : 상설공연 160여회
- 사업내용 :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설공연 제작 및 운영
- 시행주체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운영

- 사업목적 : 한옥자원을 활용한 야간상설공연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도모
- 사 업 비 : 840백만원(국비[기금] 600, 도비 240)
- 사업규모 : 도내 5개소(전주·정읍·남원·임실·고창), 상설공연 100여회
- 사업내용 : 한옥자원을 활용한 창작공연 제작 및 운영

- 시행주체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표 5-2] 전북 관광브랜드 상설공연 연계 익스트림 태권도공연 제작 예산항목

관계기관	예산항목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 지역대표공연 예술제지원, 지역명소활용공연지원,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참가 및 해외 진출 지원,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전통 공연 예술 활동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	- 태권도 관람형 산업육성
전라북도	전북 SIT 브랜드 상품 마케팅	- 태권도원의 관광브랜드화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태권도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제작

▌ 필요성 및 목적

❍ 발굴된 태권도 역사자원을 콘텐츠로 향유하고 태권도원 방문객의 도내 유입을 위해서는 태권도 콘텐츠 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상설공연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확보가 필요함

- 미디어파사드 : 미디어(media)와 파사드(facade : 건물의 외벽) 합성 용어로 건물 외벽에 콘텐츠 영상을 투사하는 것을 이름 (2018, 네이버 지식백과)

❍ 미디어파사드를 태권도 역사자원과 결합함으로써 태권도자원, 예술,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태권도콘텐츠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일원 태권도자원 구축 내 적합 공간 활용

❍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전라북도,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등

▌ 사업내용

❍ 전라북도 태권도 인물, 겨루기 태권도, 호구 등 스토리로 구성된 콘텐츠 제작

❍ 영상 콘텐츠 상시 전시

▌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관련사업(시책) 현황

- 한국콘텐츠산업진흥원의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레벨업 프로젝트 활용

  ※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국비 지원: 1건 당 사업비 500백만 원 내외(국비 300백만 원 규모 지원)

- 전라북도(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주관) 공모사업 '1시군 1콘텐츠 개발' 활용: 총 사업비 400백만 원(지원금(40%) + 자부담(60%, 시군비+민간부담금(5% 이내))

[표 5-3] 태권도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제작 예산항목

관계기관	예산항목	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특화 콘텐츠개발지원 레벨업 프로젝트	• 2018년 공모 참여: 국비 300백만 원 지원 (총사업비 500백만 원 내외)
전라북도	1시군 1콘텐츠 개발사업	• 2018년 공모 참여 : 총사업비 400백만 원(지원금(40%) + 자부담(60%, 시군비+민간부담금)

3. 템플스테이 연계 자원 개발

▌ 필요성 및 목적

❍ 우리지역의 자원인 태권도 자원을 통한 상설화 프로그램을 육성하여 문화, 체육, 관광이 연계된 관광프로그램으로 육성하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콘텐츠의 차별화 및 다양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템플스테이 참여자는 예불, 참선 등 다양한 사찰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한국불교의 정신문화를 경험하게 됨

❍ 전북도내에서는 익산시 숭림사, 남원시 실상사, 남원시 귀정사, 김제시 금산사, 완주군 송광사, 무주군 안국사, 고창군 선운사, 부안군 내소사, 부안군 개암사 등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산사, 선운사, 내소사에서는 외국인 전문 템플스테이를 운영 중에 있음

❍ 태권도원 내방 외국인은 태권도 대회 혹은 연수 참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불교의 정신과 태권도 정신수련 문화를 결합한 프로그램 개발로 태권도원 방문, 도내 태권도 및 관광자원 방문, 템플스테이 체험으로 연계된 숙박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위　　치 : 익산시 숭림사

❍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익산시, 숭림사 등

▌ 사업내용

❍ 태권도 결합 템플스테이 운영

- 예불, 발우공양, 다도, 참선(명상), 울력, 인경/사경, 연등/염주/차 만들기 등 일반적인 프로그램외에 태권체조, 태권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 구성하여 태권도와 결합된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 전문 템플스테이 운영

- 외국인 편의 도모를 위해 외국인 전문 템플스테이 사찰 운영
- 체계화된 외국인 전담 시스템을 통한 템플스테이 참여 가능 도모
- 참여자의 흥미성 유발을 위한 태권도 프로그램을 접목한 템플스테일 프로그램 구성
- 한국 불교의 정신과 태권도 정신수련 문화를 결합한 한국 고유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관련사업(시책) 현황

❍ 전통문화체험지원

- 사업목적 : 지역 고유의 역사,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지자체 전통문화체험 관광콘텐츠 개발, 홍보 지원을 통한 지방 관광콘텐츠 확충 및 전통문화여행 활성화 제고
- 사 업 비 : 35,393백만원
- 사업규모 : 템플스테이 운영 및 시설 지원, 서원향교 운영 및 시설개보수 지원, 한옥체험 프로그램 및 홍보지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 전통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및 홍보
- 사업내용 : 템플스테이 운영지원, 템플스테이 시설지원, 전통사찰 관광상품화, 전통문화 재현 및 체험, 전통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지원
- 시행주체 : 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성균관, 개별서원향교,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 추진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관광진흥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76조

❍ 글로벌무술문화교류축제

- 사업목적 : 태권도 연계 체류형 정기관광 상품으로 14개 시·군으로 관광객 확산
- 사 업 비 : 15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태권도 컨퍼런스, 글로벌무술문화교류행사, 태권도 연계 도내 주요관광지 탐방 등
- 시행주체 : 공모선정
- 추진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표 5-4] 템플스테이 연계 관광코스 구축 예산항목

관계기관	예산항목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 체험지원	- 템플스테이 운영 및 시설 지원, 한옥체험 프로그램 및 홍보지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 전통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및 홍보 ※ 민간단체 : 정액지원, 지자체자본보조 30%
전라북도	글로벌 무술문화교류 축제	- 태권도 연계 체류형 정기관광 상품으로 14개 시·군으로 관광객 확산

4. 태권도 문화마을 조성[35)]

▌ 필요성 및 목적

❍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태권도를 주요 과제로 선정한 후 국정과제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 연구를 수행함

❍ 무주군에 태권도원 및 태권도진흥재단이 설립되고 태권도 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스포츠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태권도원을 미래 천년을 준비하는 '태권도 미래'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태권도 역사문화자원 고증을 통해 태권도의 역사적 자산을 발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특화사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태권도 문화를 홀로그램, AR·VR 등 시각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ICT 기술에 접목하여 관광적 가치를 제고하고, 태권도 문화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관심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와 유리된 수요자 중심의 폐쇄적 개발이 아닌,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성장 축으로 활용해야함

▌ 사업개요

❍ 위　　치 : 무주군

❍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

▌ 사업내용

❍ 태권브이 랜드조성사업 및 태권도원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

- 로봇태권브이 전망대, 비밀기지, 짚라인, 스카이워크, 진입로, 경관시설 등 조성
- 태권 Cottage(야외명상시설), 태권 어드벤처(모험체험시설), 기반시설(도로 등) 조성
- 태권커뮤니티센터 및 힐링 테라피센터, 로컬푸드, 야외문화공간, 치유정원 조성 등

35) 전북연구원(2018). 「전북 스포츠산업 발전방안 연구」를 참고하여 재구성

○ 태권도 아카이브구축

- 교본, 관련 서적 등 태권도 관련 자료 집대성
- 옛 태권도 유·무형자산을 고증하고 이를 복원 및 디지털 영상으로 제작
- 신문 및 자료를 집대성하여 태권도의 역사자료 구축

○ 태권도 수련파크

- 남녀노소 태권도를 체험할 수 있는 실내형 테마파크
- 태권도의 가치를 알아가는 태권도 역사놀이터 조성

○ VR · AR 체험관 건립

- ICT를 활용하여 태권도 진수를 오감으로 만끽할 수 있는 VR · AR 체험공간 마련
-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태권도 명인에 이르는 과정을 제공

▌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관련사업(시책) 현황

○ 태권도 진흥

- 사업목적 :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및 태권도를 통한 한국문화 해외 보급 및 태권도 종주국 위상 제고 및 올림픽 종목 유지 기반 공고화
- 사 업 비 : 15,459백만 원
- 사업내용 : 태권도 세계화, 태권도 교육·연구, 태권도 콘텐츠 육성, 태권도 프리미엄산업 생태계 창출, 태권도 문화콘텐츠 개발 보급, 국기원 명소화
-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무주 태권마을 조성

- 사업목적 : 태권도원 및 주변 우수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로 볼거리, 체험거리 제공을 위한 건강 힐링 체험 특화 공간 조성
- 사 업 비 : 2,000백만원(국비[지특] 1,000, 군비 1,000)
- 사업규모 : 53,563㎡
- 사업내용 : 태권커뮤니티센터 및 힐링테라피센터, 로컬푸드 등

- 시행주체 : 무주군
- 추진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 전북 SIT 브랜드 상품 마케팅

- 사업목적 : 태권도원의 관광브랜드화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태권도, 전통공연, 세계유산 등 특화자원 세분화 마케팅 및 스포츠 등 특수목적관광 상품홍보마케팅 등

❍ 동부권관광자원개발사업 전출금

- 사업목적 : 동부권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
- 사 업 비 : 24,900백만원(국비[지특] 12,350, 도비 5,650, 시군비 6,900)
- 사업규모 : 남원 예촌마당 조성 2,000㎡ 등 9개소 관광자원개발 사업
- 사업내용 : 태권도원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무주), 무주아일랜드생태테마파크 조성(무주) 등 9개소 사업
- 추진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표 5-5] 태권도 문화마을 조성 예산항목

관계기관	예산항목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 진흥	• 태권도 세계화 • 태권도 교육·연구 • 태권도 프리미엄산업 생태계 창출

정책연구 2018-24

태권도원과 전라북도 태권도자원 연계방안 연구

발 행 인 | 김 선 기

발 행 일 | 2018년 9월 30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25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jthink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www.jthink.kr

비매품/무료

93320

9 788966 122509

ISBN 978-89-6612-250-9